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5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096-1097 1983년 4월 1일(금) & 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April 1 & 2,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글교사 모국연수

7월10일부터 10일간…캐나다에서 5명선발

한국인 2세교육에 종사하는 주말학교교사 모국초청 연수가 오는 7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이 미주지역및 유럽지역 한국어교사를 국내에 초청, 교과연수와 아울러 고적답사, 산업시찰, 일선시찰등을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모국의 발전상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교포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이번 연수의 초청대상은 주말학교 교사로서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금년도 캐나다 초청인원은 5명이며, 연수경비중 체재비와 연수비는 한국정부가 부담하며 왕복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가 희망교사는 5월31일까지 소속 학교대표의 추천서와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를 총영사관등 각지역 관할공관으로 보내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희망교사의 사전전화(598-4608)문의를 바라고 있다.

작년도에 캐나다에서는 캘가리의 이원재씨등 2명이 참가했으며 토론토의 지원자는 없었다.

국회요직 대폭개편

의장 채문식의원, 부의장 윤길중의원

(서울30일=연합)여당인 민정당은 30일 국회요직을 대폭 개편, 채문식 부의장을 의장으로, 윤길중의원을 부의장으로 임명하고 13명의 국회상임위 위원장중 11명을 경질했다.

경질되지 않은 상임위는 당원내총무인 이종찬운영위원장과 국방위의 김영선위원장이다.

정래혁 국회의장등의 임기는 오는 4월10일로 끝난다.

국회요직개편내용은 오는 4월11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민정당이 절대다수당이므로 개편안의 승인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1개 신임 상임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병채-법사위위원장
◆봉두완-외무위
◆권중달-내무위
◆정재철-재무위
◆유경현-경제·과학위
◆이해원-교육·문공위
◆김 식-농어업
◆배명국-상공위
◆이찬혁-보사위
◆정동성-운수·교통
◆박권흠-건설위
◆김종호-예산·결산위
◆이세기-특별지원위

〈오늘의 시세〉

금(런던 하오 FIX)	$515.14/oz
은(토론토)	$13.06/oz
캐나다 1달러	US$0.8114
미 화 1달러	CAN$1.2324
원화·캐네디언달러 교환율	
(서울 외환은행 전신환 매입/매출)	617.92/621.02

토론토국제공항부근 부지에 실내경기장 건설추진

토론토에 돔·스태디움(Domed Stadium)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욕크·하노버(York-Hannover)건설회사는 약2억$이상의 비용을 들여 하이웨이401과 427이 교차하는 토론토국제공항근방의 500에이커의 땅에 6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덮개식 대운동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시사가 하젤 맥칼리온시장의 강력한 지원아래 시작하려는 스태디움건설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맥」시장은 "이 제안을 환영하고 이 스태디움이 건설되면 소위 Golden Horseshoe로 불리우는 오샤와로 부터 해밀턴에 이르는 온타리오호수 서부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트로 시의장인 폴·갈프리씨는 스태디움이 박람회장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욕크·하노버회사는 현재 메트로·스카이라인 호텔, 트라이엄프호텔, 나이아가라의 세라톤호텔, 칼가리의 포·시즌스호텔, 쾌벡시의 할리데이·인호텔을 비롯, 바하마등지에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사 고▶

월·화 합판 4일제작

4월1일은 「굿 프라이데이(성금요일)」 공휴일로 본사도 휴무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금요일에 제작·인쇄하던 월요판은 이번주에 한해 4일(월), 5일(화) 합판으로 월요일 제작·인쇄합니다.

◆ 바로잡습니다 ◆

31일자 본지 4면 「실협뉴스」화보단에 실린 사진설명중 「공로패를 받는 최광준씨」를 「회원등록 1,000번째로 기념패를 받는 박기복씨」로 등록, 정정합니다.

미스코리아후보 제3호

맨손체조·피아노에 뛰어난 조경희양

신장 166Cm
34-25-36

◆조경희양

맨손체조 선수이며 피아노에 뛰어난 조경희양(19세)이 캐나다 미스코리아후보 제3호로 30일 접수됐다.

어려서부터 체조로 다진 늘씬하고 균형잡힌 몸매에 「부전여전」으로, 음악가 아버지의 소질을 이어 타고난 음악천성을 발휘, 피아노에 특출한 기능을 후천적 노력으로 다져왔다.

경희양은 색스폰, 드럼등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조상국씨(50)와 조반실씨의 1남2녀중 장녀로 상명여고를 졸업했으며, 여중때부터 전교 체조선수로 활약했다. 82년 7월 토론토에 왔다.

"음악의 나라 독일에 꼭 가보고 싶다"는 경희양은 음악에의 정열을 불태우게 "그랜드피아노를 갖고"싶단다.

자신의 매력의 포인트를 약간 감스런 피부에 두고 있다는 이 아가씨는 모국의 미각을 잊지 못해 "한국음식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며, 꽃은 향기가 좋아 라일락꽃을 사랑한다"고.

신체조건은 키 166cm, 몸무게 59Kg, 34-25-36인치.

추천: 토론토「한국관」

▲『교포 여러분 감사합니다』—이철수씨가 후원회멤버및 변호사들과 스탁턴의 랑끄야마다변호사어머니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왼쪽끝이 유재전후원회장, 오른쪽끝이 헨론변호사. 〈관련기사 4면, 7면〉

교차승인만이 해결책

키신저 방한중 남북통일에 언급

(서울31일=연합)헨리·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은 31일 "교차승인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의 방법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신병현 한·미경제협의회 회장의 초청으로 30일, 31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 전대통령과 김상협 국무총리등과 회담을 가진 키신저씨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가진 고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키신저장관은 지난 75년 유엔총회에 한반도문제 해결책으로 소련과 중공이 남한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동시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교차승인안"을 상정했었다.

키신저장관은 또 지금까지 미국이 평양에 대해서 보다는 소련이 서울에 대해 더욱 많은 추파를 던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문제에는 급속한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키신저장관은 이보다 앞서 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전은 미국과 직접 관련돼 있으며 중·소관계가 보다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의 중·소 화해움직임은 소련보다는 중공이 외교정책상 더욱 필요로 느끼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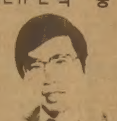
한국은 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년 올림픽게임뿐 아니라 IMF(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의원연맹 총회도 주최할만한 국가적 안정을 이룩했다고 평가한 키신저장관은 앞으로 외국기술도입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허삼수 전보좌관 연구차 하와이에

(서울30일=연합)대통령 사정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낸 허삼수씨가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East-West Cultural Center)에서 연구하기 위해 31일 하와이로 떠났다.

허씨는 수개월전 허화평 전 정무담당 수석보좌관과 함께 보좌관직을 사임했었다. 허화평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불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관품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TEC
전자계산기
저 울

* 전자계산기… $395부터
*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세일 4800 per 100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4월5일(화)부터
확장이전 개업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 옆)
(416)530-1870 권 수 희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여권법 다시 강화

여행자유화에 따른 물의 극소화위해

(서울31일=연합)81년 여권법을 개정, 한국인의 해외여행 제한을 상당히 완화했던 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물의를 극소화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외무부소식통이 밝힌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해외여행 초청장은 재외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30세미만 미혼여성의 여권신청자에게는 불법해외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해야한다.

▲50세미만 부부의 동반여행은 반드시 국제회의및 활동에 한한다.

▲공산권국가를 방문할 경우는 외무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체관광여행자는 1년 유효의 1회용 여권을 발급한다.

"에드몬톤 유니버시아드 LA올림픽보다 질적우수"

금년 7월1일부터 알버타주 에드몬톤시 콤몬웰스·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게임이 84년 LA올림픽보다 질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전망했다.

28일자 주간경제지 Financial Post는 조직위의 말을 인용, 게임규모나 예산면에서는 LA올림픽보다 훨씬 뒤떨어지나 경기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앞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76년 몬트리얼, 80년 모스코바올림픽 메달입상자의 76%가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개회식이 열릴 콤몬웰스·스타디움의 좌석을 16,000석 증설, 총 61,000석으로 만드는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입장권은 이미 40%가 판매되었다.

이 신문은 또한 에드몬톤경기는 85개국 4,500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이고 유니버시아드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미니승용차 「M-카」 6월부터 미국시판

(디트로이트)GM회사는 초미니 승용차를 일본 스즈끼회사로부터 수입, 84년 6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M-카」로 알려진 이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중 가장 작고 값싼 것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엔진용량 1천CC인 「M-카」의 가격은 4천5백달러인데, 개솔린 연료로 갤런당 50마일을 달릴수 있다.

동우회이사장에 지명환씨 피선

서독 근로자출신 교민들의 모임이며, 토론토 최대 친목단체중의 하나인 「동우회」(회장 서명식)는 19일 이사, 임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지명환씨, 부이사장에 이윤교씨, 총무이사에 정택교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회장은, 자신이 인선한 이용구부회장에 대한 인준을 받은후, 변장엽총무등 7개 부서장들을 이사진들에게 소개했다.

동우회 이사진은 1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5명의 선임이사들에 의해 최근 선출되었다.

이사·임원합동회의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월 동우친선골프대회
▲7월9일(토) 천선야유회및 경노잔치
▲7월23일 동우골프대회
▲12월23일(금)연말파티 (장소 : Sky Line)

뇌기능정지 64일만에 아들낳고 숨져

(샌프란시스코)뇌기능마비로 "법적사망" 통지를 받은 여성이 생명보조기로 목숨을 연명한 지 64일만인 29일 3파운드짜리 아들을 낳아 화재가 되고 있다.

산모는 샌프란시스코 모핏·하스피탈의 의료진의 도움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낳았으며, 아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병원당국은 밝혔다.

산모는 태아가 임태된지 22주째때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뇌기능이 정지된 식물인간이 되었으며, 생명보조기로 목숨을 연명하는 동안 의사들은 염증과 당뇨증세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기가 태어난직후 생명보조기가 제거되는 순간 산모는 숨을 거두었다.

미국에서는 약31개주에서 뇌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법적사망" 상태로 선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익재미너지는 30일 캘리포니아주의 뇌사망법에 의해 지난1월부터 "법적사망"으로 선포된 여성의 뱃속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64일간 산모의 생명을 유지한 것은 의학상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비지니스 수신함

권병구씨 건강식품점 개업

토론토 무역인으로 초창기에 활약이 컸던 권병구씨는 에그린톤·스퀘어(빅토리아파크×에그린톤)몰에 천연건강식품점을 오픈한다.

10년전 이민 초창기시절 무역에 재미를 못본 권씨는, 그동안 버라이어티가게를 인수, 현재 스카브로지역에 2개의 버라이어티가게를 소유하고 있다.

권씨는 "아무리 큰 구멍가게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Mall에 리스를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 리스를 받게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없다"고 말하면서, 거의4달간을 내 Credit 조사를 한것으로 봐서, 확실히 이 사회는 "Credit사회"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성균관대학교 제2대 동창회장으로 봉사중이다.

브리타니카 '83년 연감에 실린 남북한 관계 및 주요사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의 83년도 연감은 2페이지 반에 걸쳐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에서 82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싣고 있다.

이 백과사전은 남북한이 모두 국내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데 바쁜 한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브리타니카가 83년도 연감이 실린 남북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두환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매우 세부적인 통일방안 청사진을 제출, 남북의 수뇌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자유로운 선거로 한반도를 통일하자고 밝혔다.

전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북한의 김일성이 거부했는데 김은 4만의 미군철수, 전대통령사임, 정치범 석방등을 들고 나왔다.

통일의 이야기가 오갈때 2명의 카나다 교포가 전대통령 암살을 기도, 관계가 악화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미국의 와인버거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두환대통령은 36년된 통금을 해제했으며 남덕우총리 후임에 유창순씨를 임명했다.

통금해제는 '국민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았으며 사회안정에 자신있다는 징후를 보인 것이다.

전대통령은 김대중씨를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한 후 미국으로 떠나게 했다.

4월26일에 의령에서 한 경찰이 56명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 국가안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이사건으로 서정화 내무장관이 사임했다.

장영자여인과 남편 이철희는 국내 사상 유례없는 2억5천만달러의 사채 사기사건이 일어나 사채시장의 부조리를 정리하게 됐으며 6개의 큰 기업이 이사건에 관계되었다.

전대통령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후 유창순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상협 고대총장을 임명했다.

전대통령은 8월에 비동맹국가회의 주요국가인 케냐, 나이제리아, 가봉, 세네갈을 방문, 한국입장을 밝히는 한편 무역증진을 토의했다.

▲북한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부수상에 앉힐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에 있은 새로운 내각조직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장성들이 김정일에 대해 상당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북한은 국민 총생산량 1백62억 달러의 25%를 국방비로 쓰는데 한국은 총생산량 5백80억 달러의 6%를 쓴다.

김일성은 중공을 방문, 20대의 미그-21기를 받았다.

Korea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소개된 82년도의 한국

Chang Yong Ja, wife of Lee Chul Hi, former deputy director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as taken to court in July in Seoul. She and her husband were defendants in what prosecutors called

vate loans
in-law wa
Lee were
places to e
ment-con
oped int
crisis in r
The pol
Chun, w
strong str
himself o
Cabinet."
governme
priest for
arson at
months e
Christian
step dow
arson, ex
sult of "U

성인잡지 판매에 대하여

김보경박사(심리학)

◆김보경 박사

코너스토아등 미성년자들이 드나드는 곳에 성인잡지류가 공개진열되므로써 교육상 악영향을 끼친다는 일반인들의 여론에 따라 토론토시가 최근 각계 각층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고 또 이들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성인잡지규제법을 제정했다.

한인스토아를 대표하는 실업인협회는 대표를 파견하여 공청회에서 법적규제에 대하여 반대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법정투쟁을 벌일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있다.

필자와 같이 직접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성인잡지취급에 대한 특별규제법이 얼마나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쩐지 법적 규제없이 자유롭게 그러한 외설물을 꼭 취급해야 하겠다는 우리 한인 실업인협회의 태도에 100%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왜냐하면 실업인측 주장이 어디에 맞추어 보아도 좋은 수입원을 놓치기 싫다는 이외에 별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체로 세가지점으로 첫째, 이러한 외설물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주장에 반대할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성윤리가 말할 수 없이 타락했다고 우리들이 믿는 서양사회도 영화내용까지도 몇급으로 나누어서 성적장면이 노골적인 영화는 성인을 위해서도 가위질을 할뿐 아니라 미성년자는 극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대표로 연설한 사람이 "우리들은 남앞에 입맞추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무엇이 부끄럽고 그렇지 않는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규제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몇년간을 우리는 얼마나 자율성있게 감출것 감추면서 지나왔는지 의문이며 또 이 말이 별 효율성이 없는 것은 그 마치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잡지를 꼭 취급하려는가에 의문성을 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집 애들을 헬퍼로 쓰면 이러한 책을 볼까봐 남의집 아이를 데려다가 일시킨다는 말을 하는 무책임한 사람도 보았다. 우리는 법적규제가 없어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이 그러한 외설물에서부터 보호받도록 상점경영자 전부가 조처해서 책임질 자신이 있는가?

둘째,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설물을 공개 판매하는 것은 기독교적 윤리에 어긋나며 가정과 도덕제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인기독교도들이 성인잡지를 보는 눈은 백인기독교인들이 보는 눈과 다른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러한 잡지를 취급하는 상인들중에 집사, 장노가 없는지는 몰라도, 토론토에 많고 많은 그 교회들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난다. 만약 한인기독교인들도 백인형제교인처럼 외설물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면 적어도 교인들이 그 신앙적 기반에 서서 구태어 이 책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셋째, 지역적 전통성을 존경해야 한다는데서 법적규제를 주장한다. 코너스토아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잡지류 때문에 불쾌감을 받는다든가 그들이 믿고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그 점포에서 철수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즉 그 지역의 전통성을 저해하는 상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민자들로서, 백인사회 역시 우리 한인사회의 지역성 내지 문화적전통을 존중하기를 원하는한 이들의 이러한 요구 역시 용납할 수 밖에 없다.

성인잡지니 성인영화니 하는 Pornography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루이틀 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대법원은 미성년자들의 외설물에 대한 노출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했으며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그 지역성에 따라 검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뉴욕과 같이 음화가 온거리에 넘치는 것을 볼때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하는 의문도 가진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여자가 성인잡지의 모델로 나왔다고 하여 동포의 수치니 무어니 하면서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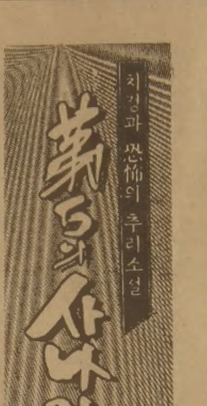
또 우리는 돈을 벌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일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잡지를 "더티북", "더티북"하면서도 팔겠다는 주장이며, 가장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질책하면 욕하는 백인사회가 코너스토아에서 공개적으로 팔만한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로닉하게 들린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어떤 원리나 표준을 잃고 살때 이는 병들었다는 표적이다. 우리가 성인잡지 판매규제에 대하여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있을때는 마땅히 해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들의 투쟁이 무분별한 물질적 이득에만 기인한 소치라고 하면 그 책을 파는 것이 부끄럽기 보다 그 마음씀이 부끄러운 것이다.

나는 얼마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 크게 선전되던때 어떤 가게에 가서 담배를 찾으니 그 가게를 보던 할머니가 자기집에는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하니 자기들도 끊기로하고 또 몸에 나쁜 담배를 타인에게도 팔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할머니는 참으로 보통사람이 아니구나하고 느꼈다. 이 사람은 비록 작은 가게를 경영하지만 자기의 개인적 신념을 자기직업에 뚜렷히 반영시키고 있구나하는 존경심과 신뢰감을 느꼈다.

토론토의 코너스토아 대부분을 한인들이 경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약 우리들이 이 할머니 같은 직업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까하는 생각이 난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흉의 사나이 <203>



어머니와 아들 ⑩

『…모세는 말이 없다.』

그것은 볼펜으로 낙서처럼 휘려 쓴 글씨였다.

그가 놀란것은 거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은가…그는 어느 새 표정없는 얼굴로 돌아가있었다. 얼굴에는 따루한 내색도하지 않은채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모세가 누군지아십니까?』

『뭐라고?』

『모세라는이름들어보셨는지요?』

『세상에 그런 이름도다있나.』

그는 어머니 몰래 명함을 주머니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지갑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이셨는가요?』

『아아니, 그러지는않았어. 왜?』

『아, 아닙니다. 그 여자가 이걸 찾으러오지는 않았나요?』

『아아니, 오지 않았어. 왔으면 돌려줬지.』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그건 모르겠다. 늙은 에미치고는 며느리 될 여자 이름 알고있는 사람은 드물걸.』

『잠깐 거닐다오겠읍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집 마당을 거닐기를 좋아했다. 어머니를 만나러올 때마다 그는 아무리 밤이 깊고 시간이 없더라도 언제나 마당을 거닐어본곤 했다. 그는 그 큰 집을 둘러싸고있는 퇴락하고 적막한 분위기가마음에 들었다. 마당에는사계(四季)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뒷마당쪽으로 돌아가자, 대숲소리가 요란스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잎들은 서로 부딪치고비벼대며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을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지는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마, 일곱인가 여덟 살 때였을 것이다. 그때도 겨울이었었다. 그고아원은 벌판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고아원이 멀리 보이는 곳에 이르자 어머니는 말했다.

『자, 이제 다 왔다. 저기 보이는 저 집에 들어가서 먹을것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재워달라고 그래. 저 집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어. 저 집은 불쌍한 애들을 돌보는데니까 네가 가면 반가와해줄거야. 그대신 엄마가 있다는 말 해서는 안돼. 절대 해서는 안돼. 그런 말 하면 쫓겨난다. 그리고 네 이름을 똑똑히 말해야해. 왕일문(王一文)이라고말이야. 어디가든 이름을 잊어먹어서는안돼.』

그녀는 술에 취해있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울먹이며 언제까지 저기에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손가락세개를 펴보였다.

『세밤만 자면 오마.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맛있는거하고 장난감 많이 사가지고 올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세 밤만자면돼.』

그는 세 밤 정도면 기다릴 수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아원쪽으로 걸어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견딜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울고있었다. 왼손으로는어서 가라고 손을 내젓고 있었고오른손으로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머니몰래 명함을 주머니 속에다…

朴男 그림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신문구독자 10명중 9명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는…
그리고 항상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일보가 매일매일 가장 열심히 만드는 일간신문이기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만드는 신문

"한국일보가 새로와졌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요즘 한국일보는 내용이 좋다."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신문"이라고 말해주는 독자도 적지 않읍니다.

한국일보가 과연 새로와진 것인지, 내용이 썩 좋아진 것인지 장담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일보가 ▲가장 많은 기자에 의해 ▲가장 열심히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신문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한층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다.

알립니다

1983년도 동우회 임원및 이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진
회 장 : 서명식
부 회 장 : 이용구
총 무 : 변장엽
기획조사 : 박주원
재 무 : 이영복
봉 사 : 김풍길
섭 외 : 신창국
체 육 : 윤기열
문 화 : 노화칠

⊙이사진
이 사 장 : 지명환
부이사장 : 이윤교
총무이사 : 정택교
이 사 : 강용중 백운산
강윤모 송중구
박재완 박금신
김용규 임철원
이기항 윤응식
김대권 송종순

토론토 동우회

1983년도 춘계 남녀배구대회

◆종 목 : 남자대표, 남자 O.B.
(30세이상 구성)
여자대표, 여자 O.B.
(25세이상 구성)
★일 시 : 1983년 4월23일(토) 오전9시
★장 소 : West Humber Collegiat Institute
1675 Martin Grove
◆신청및문의처 : 923-3846 문영환
755-9925 임승철
755-0308 정기섭
◆참가비 : 균일 $60.-
(주장회의시까지 납부)
◆신청마감 : 4월21일(목) 주장회의
◆주장회의일시 : 1983년4월21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브랜든운동구점
337 Bloor St. W.

토론토 한인배구협회

알아둘만한 토론토의 명물⑤

★아일랜드·페리
(The Island Ferries)

토론토 다운타운 남단의 부두가 하버·케슬호텔 부근에서 떠나는 페리(Ferrie)는 토론토 명물중에 하나이며 지난해 120만명을 토론토·아일랜드로 실어날랐다.

여름날 기후가 평온할 때는 15분이면 페리를 타고 섬까지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운항되고 있는 페리는 1910년 세워진 전세용 트릴리움호와 윌리엄·잉글리스(39년), 샘·맥브라이드(39), 토마스·레니(51년)등 4척이 있다.

메트로·토론토는 85년에 6백만달러짜리 페리를 한척 더 지을 계획이다.

★테드·리브(Ted Reeve)

테드·리브·아리나(체육관)등 토론토에는 테드·리브란 이름이 붙은 명칭이 자주 눈에 뜨인다.

올해 1월6일로 81살이 되는 테드·리브씨는 유명한 컬럼니스트이자 스포츠맨.

1921년 선데이·월드에 첫 칼럼을 쓰기 시작한 그는 그후 텔레그램지가 폐간되기까지 45년간 계속 글을 써온 한편 하키의 일종인 라코로스와 풋볼을 코치하기도 했다.

특히 누구에게나 정감을 주는 그의 성품은 비치지역에 있는 그의 옛집을 마치 공공장소처럼 늘 공개해놓은데서 엿볼 수 있다.

★제스·케첨·퍼블릭·스쿨
(Jesse Ketchum Public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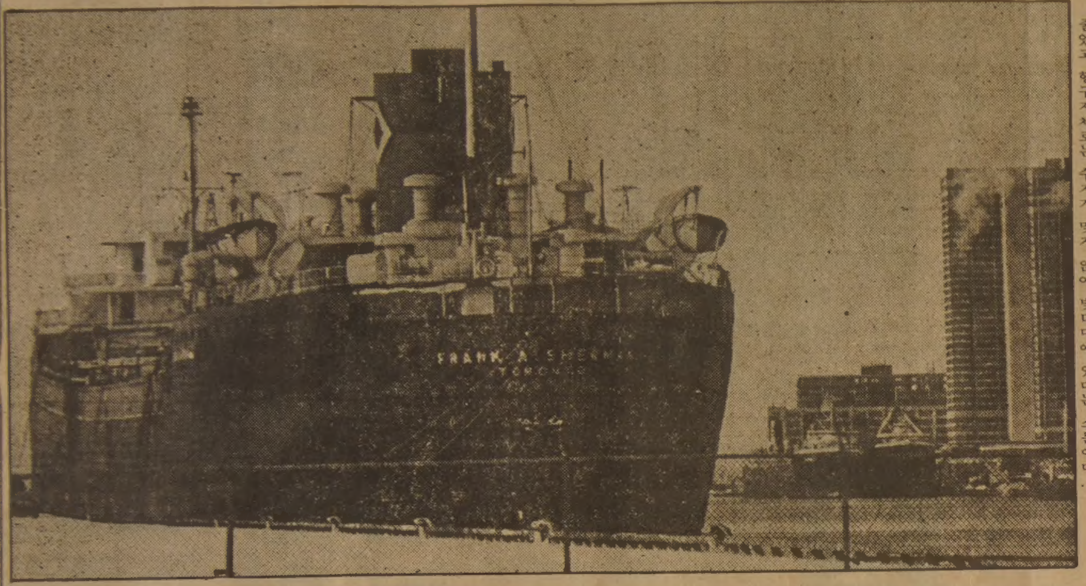
작년에 150주년을 맞은 제스·케첨·스쿨은 토론토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수많은 훌륭한 선배를 배출해 냈다.

비지네스맨이자 자선가인 제스·케첨씨가 150년전 당시 욕빌·빌리지로 불리우던 블루어 북쪽 스파다이나 동쪽에 학교부지를 기증한데서 출발했다.

★프랜즈 레스토랑
(Fran's Restaurant)

토론토에 너다섯군데 연쇄점을 갖고 있는 프랜·레스토랑들은 커피, 햄버거, 애플·파이등 음식은 물론 친절한 웨이트리스 때문으로도 유명하다.

21 St.Clair W, 2275 Yonge, 20 College, 332 Yonge등에 위치해 있다.



◆토론토 항구는 결코 아름답지가 못하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저런것이 항구"라고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다. 최근 수년간 드나드는 선박의 수도 줄었고 항구자체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빚더미에 있다는 소문이다.

「커피恐怖」사라질까

"췌장癌유발과 전혀무관"

존슨 홉킨스大서 암환자 조사

일단의 하버드 메디칼스쿨의사들은 2년전 『커피는 암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쇼킹한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정말 커피는 암을 유발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커피공포는 1981년3월 브라이언·맥마혼박사가 커피애용가들은 마시지않는 사람들에비해 췌장암발병률이 2배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뒤부터 발단이 됐는데 당시 맥마혼박사는 미국내 모든 병들의 절반이상이 커피때문에 발병할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질병의 유행과 원인들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은 현재 맥마혼박사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그동안 맥마혼의 연구결과에 반론을 제기한 바있다.

지난2년동안 의사들은 커피와 암의 관련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입원환자인터뷰등 여러가지조사를 실시 4개의 연구를 발표했다. 그런데 의학잡지에 게재된 이들 4개의 논문중 3개는 커피와 췌장암과는 전혀 무관한것으로 나머지 1개는 커피가 췌장암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각각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맥마혼박사가 발견했던것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보스턴의 아동병원진료센터에 근무하는 역학병학자 앨런·레비톤박사는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췌장암에 관한 최소한 2개의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연구들에서는 커피와 췌장암과의 관련여부도 분석되고 있다. 아직 이두개의 연구는 공식발표되지 않았으나 한연구에서 나온 예비자료에 따르면 커피와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연구를 맡았던 존스·홉킨스대학의 엘렌·골드박사는 췌장암에 관한 3백53개의 사례를 조사, 작년여름 사례들중 우선 1백42개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발표에서 골드박사는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커피나 홍차가 췌장암과 큰 관련이 있다거나 커피 애호가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발생률이 다소 높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하나의 연구는 5백케이스를 조사한 USC의 토머스·매크박사의 연구결과인데 매크박사는 『좀더 확실한 대답을 정리할 때까지』 커피와 암과의 관련성에 관해 언급을 회피하고있다.

커피와 췌장암의 관련설은 상당히 중대한 잇슈로 꼽혀왔다.

췌장암은 미전국의 암사망 원인가운데 5번째로 흔한 암으로 꼽혀왔으며 췌장암에 희생되는 사람은 1년에 2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 췌장암은 대부분의 경우 진단을 받은지 1년안에 환자가 사망하는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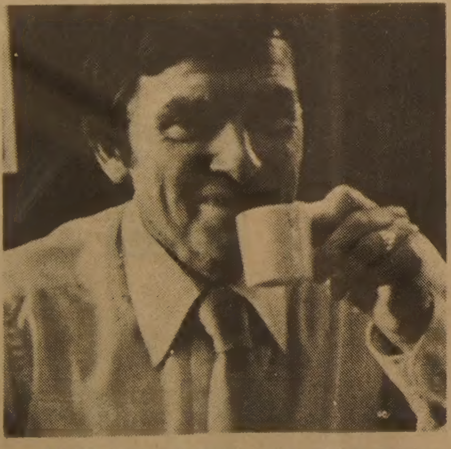
그러나 2년전 하버드대학이 커피와 암의 관계를 발표한후에도 일반 커피드링커가 그발표때문에 커피마시기를 중단한 경우는 드물었다.

뉴멕시코 메디컬센터의 서베이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5백66명중 70%가 커피드링커. 그러나 하버드발표를 듣고 커피를 끊은 사람은 단1명에 불과했다.

전국커피협회에 의하면 지난20년간 커피소비량은 계속 감소해왔다.

1960년 미국인 1인당 하루평균 3.12컵이던 커피소비량은 80년에 2.02컵으로 81년에는 1.92컵으로 그리고 82년에는 다시 1.90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하버드의 발표가 커피인구감소의 원인에 포함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국커피협회는 덧붙였다.



▲2년전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발표, 화제가 되었던 커피와 췌장암관련설은 그뒤 여러 연구에서 근거가 희박한것으로 비판받고있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3rd.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파티안내

본회는 금년들어 회원들의 등록과 명단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디너파티를 개최하오니 부부동반하여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4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남강(구 그라나다)
920 YONGE ST.
커플당 30불
당일행사: 회원등록
디너
경품추첨
댄스파티
★많은 상품이 준비되었읍니다.
연락처: MR. 위 251-9587
MR. 조 531-6430
MR. 리 630-2400
MR. 정 961-2961

공군보라매회

정기총회 공고

희망의 새봄을 맞아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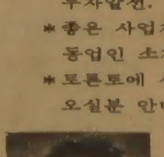
일 시: 4월6일(수) 오후7시
장 소: 크링톤하우스 (535-9541)
연락처: 부회장 이윤현 496-1100
부회장 최남축 255-4645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아이스하키협회장 이 종 원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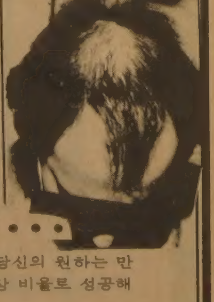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채 준 성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오전11시~오후8시
▲ (토):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8 537-3104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民正黨 제2차 全黨大會

어제 創黨2년만에 中央委員 2,742명 새로선출

새黨憲·政策개정案채택

民正黨은29일상오 서울蠶室체육관에서 당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을 비롯, 陳懿鍾대표위원등 당간부와 중앙위원, 대의원, 당원및 초청인사등 1만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創黨후 첫全黨大會를 가졌다.

黨憲에따라 2년만에 열린 이날 대회는 蔡汶植국회부의장을 전당대회의장으로, 尹吉重·金淑鉉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한후▲黨중앙집행위원회안에 常任委를 신설하는 내용의 黨憲개정안과▲9개항의 綱領및 25개항의 기본정책으로된 政綱政策개정안을 채택했다.

또 2천7백42명의 선출직 중앙위원을새로선출하고▲黨조직을 민주화하고 활동을대중화, 운영을 효율화하여 정치의선진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설것▲국민이 총집결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도적역할을다할것▲의식개혁에 솔선수범하여 선진조국 창조의역할을다할것등을 다짐하는 3개항의결의문을 채택했다.

◇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이 民正黨전당대회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受惠와 特權정치 청산 國民위한 政治 정착을"

全대통령 致辭서 강조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9일『선진조국의 창조로 가는길은 우리민족의 꿈과 理想이 담긴 역사의 소명이며 8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에게 부하된 시대적과업』이라고 말하고『선진조국의 창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의 先進化에서 비롯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蠶室체육관에서 열린 民正黨 제2차全黨大會에 참석, 치사를 통해『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국민을 위한 정치」가 정착되어야한다』고 역설하고『따라서 정치인은 公人으로서 일한다는 정신을 투철하게 지녀야하며 정당은 그러한 당원이 모인 公조직으로서 公黨의 성격을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民正黨은 국민을위해 일하는 公黨으로서의「생산하는 정치」를 뿌리내리도록하는데 슬기와 노력을 다해야할것』이라고 당부하고『꾸준한 자기개혁의 노력으로 그동안 힘써 가꾸어 온 청렴과 봉사의 정치를 더욱 내실화하고 受惠와特權의 정치풍토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정치인이나 정당이 獨善과 맹목적인대결로 자신은물론 국민의이익과 국력을 소모하는 정치에 골몰하는사태는 결코 再現되지않아야한다』고 말하고『우리모두 현실에 安住하려는 유혹을떨치고 영구개혁자의 신념으로 의식개혁을지속하여 청렴과 봉사의길로 영광스럽게 전진해나가자』고 다짐했다.

祝賀리셉션 참석

全斗煥대통령은 29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 民正黨전국대의원대회 축하리셉션에 참석, 환담을 나눴다.

에콰도르外相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9일 하오 청와대 에서 에콰도르의 루이스·발렌시아·로드리게스외상을 접견하고 修交훈장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 金以銘駐에콰도르대사, 페레스·안다 駐韓에콰도르대사가 배석했다.

이에앞서 도미니카의 루이스·안토니오·쉐케드·오르티스 체육및 餘暇담당장관을 접견했다.

스리랑카首相 來韓 오늘 金총리와會談

스리랑카의 프레마다사首相이 金相浹국무총리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키위해 29일 하오4시20분 KAL편으로 來韓했다.

프레마다사 수상은 오는4월1일까지 머물면서 30일에는 중앙청으로 金총리를 예방,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우호증진및 경제협력확대등 공동관심사에대해 협의하며 청와대로 全斗煥대통령을예방, 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暴行수사」국민에 謝過

盧내무 사태반성… 조속히 對策마련

盧泰愚 내무장관은 29일 수사경찰관의 폭행으로 韓一합섬이사 金根祖씨(42)가 사망한 사건에대해『국민에 대해 사과드린다』고말하고 이러한 사태를 반성,조속한 대책을 세울것을 경찰에지시했다.

盧장관은 이날『경찰은 불과1년전에 있었던 엄청난죄과를잊고 권력기관이라는 헛된 자만과 타성이 남아있다』고지적,『민주경찰의 발전은 경찰내부로부터 폭력을 추방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또 새로운 경찰로 탈바꿈하기위해『경찰 모두가 노력해야하고 이에 역행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막론하고 경찰조직에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흥신의「人間市場」
●한국 學閥·人脈을 캔다

◇다시 태어난 아들과 어머니 28일 하오5시 20분(현지시간) 10년간의 옥살이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李喆洙씨가 아들의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던 어머니 李美禮씨와함께 형무소 문앞에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고있다.
【산 호킨카운티=김한길기자 찍음·샌프란시스코→日요미우리新聞中繼→本社링】

억울한 獄살이 10년 李喆洙씨 풀려나다

보석금 12만5천달러 낸후

【스톡턴(美캘리포니아州)=邊鴻鎬기자】살인누명을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미동포 李喆洙씨(30)가 석방됐다.

이곳 산호킨 카운티지방법원 피터·헤이어스판사는 28일하오4시40분(현지시간) 李씨의 보석금을 25만달러에서 절반인 12만5천달러로 내린후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산담보를 인정, 즉석에서 李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의 보석허가가 내려진후 2시간만인 이날 하오6시40분께 李씨는 산호킨 카운티 미결수 교도소에서 풀려나와 지난73년6월7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갱사건관련 혐의로 구속된후 꼭9년9개월21일만에 자유의 몸이되어 가족의 품에 안겼다.

李씨는 교도소문을 나서면서『나의 석방을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준 한국일보L A지사를 비롯, 재미동포와 고국의 동포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오늘 이세상에 다시 태어난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울먹였다.

李씨의 이날보석은 李씨가 매주1회 담당변호사에게 소재지를 통보한다는 조건이붙어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자로 李씨를 재기소했으며 재판부는 李씨의 제2사건심리가 오는 7월2일부터 재개, 7월11일부터는 배심원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李씨의 보석을위한 재산담보(총24만5천달러상당)는 柳在乾후원회장, 샌프란시스코에있는 불교사찰인 如來寺 그리고 야마다·탐꼬변호사, 李씨부모등의 부동산으로 되어있다.

"美對韓공약 가장확고 한국、中·蘇와화해기미"

駐韓美부대사 밝혀

【東京=宋孝彬특파원】클리블랜드駐韓美부대사는 29일 東京에서 열린 게이오(慶應)대학주최세미나에서『레이건 美행정부는 미국의 그어느정권보다도 對韓방위공약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결의를 갖고있으며 韓美간의 상호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클리블랜드부대사는『미국의 對韓정책은 변하지않았으며 한국군의근대화는 韓美연합사령부를통해 원활히 추진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일본에 나까소네(中曽根)정권이 들어선후 정치경제등 각분야에 걸쳐 한일양국관계가 원활히이뤄지고 있는것은 한반도의안정에도움이될것으로미국은믿는다』고말했다.

그는『한국이 최근 중공·소련등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이는 한국이내세우는 남북한교차 승인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여건이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레이건행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아시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拷問수사 철저히규명 유학생試驗 부정도

民韓、常委소집촉구

民韓黨은 29일 경찰조사중 숨진 韓一合纖이사 金根祖씨 사건과 國費해외유학생 선발시험 부정사건등을 다루기위해 국회 內務委와 文公委를 즉각소집할것을 여당측에 요구키로했다.

民韓黨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같이결정했는데 특히 金이사 사건은 官憲사건이후 경찰관에의한 또하나의 중대인권유린사태라고 규정하고 진상을철저히규명, 관계관의 引責을요구키로했다.

林鍾基총무는 이날 당무회의가 끝난뒤『金씨사건은 日帝경찰의 잔재인 고문행위가 아직도 남아있는 증거로서 민주경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국회法개정과 油價문제못지않게 인권유린사태를 오는4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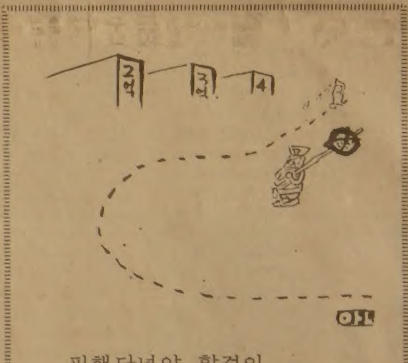
이날 당무회의는 또 國費유학생선발시험 不正사건과 관련,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不正여부를 철저히 추궁하려면 國政조사권이 발동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발동이 어렵다고 판단, 국회文公委의 소집을 절충토록했다.

女性開發院長에 金榮禎교수 任命

정부는 29일 신설되는 한국여성개발원장에 梨大교수인 金榮禎씨를임명했다.

◇金원장약력=▲梨大英文科졸업▲캐나다터론토大▲梨大교수▲梨大대학원장▲한국여성연구소장▲YWCA연합회 부회장▲세계YWCA 실행위원

社会漫評


피해다녀야 할것이 이렇게 많아서야…

地平線

奧田晴樹라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교사는『한국의 중학교 국사교과서를 읽고 깜짝놀랐다』고 했다. 작년에 일본역사교과서의「왜곡」시비가 한창이었을 때의 얘기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가 거꾸로돼있기 때문이다.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라는 한국측요구에 대해 일본인 75%가 불만이었다는 일본의 국제관계공동연구소 조사결과도 그「왜곡 교육」의 산물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서기2백년인 소위「황기 860년」에 신공황후가 신라·백제·고구려를 정벌했다고 가르치고있다.「…이윽고 백제에서 王仁이라는 학자등이 와서 학문을 전하고, 베짜기 대장장이등 장인들도 계속 건너왔다』한다. 글자도 옷도 칼도 모르던 왜인들이, 다시말해서 벌거벗은 야만인들이 한반도를 정복했다는 얘기다.

▼재일 동포작가인 金達壽씨에 의하면 고대일본의 출발점인 大和왕조의 서울·飛鳥지방인구의 80~90%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었다. 702년에 기록된 현재 福岡市인 풍전국의 호적대장에는 80~60%가 한반도계인 秦씨로 돼있다. 그런데도 일본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이 그옛날 남한에「日本府」를 두고 통치했다고 가르치고있다.

▼1972년은 일본사람들에게「제2의 원자탄」을 맞은 해였다고 할수있다. 천황의 무덤으로 전해져온 고분을 열고보니 고구려식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고대일본의 주인공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는 소위「기마민족설」이 24년만에 비로소 햇빛을 보게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江上波夫라는 학자가 48년에 발표한 학설이다.

▼江上교수의 기마민족설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편이지만 일본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6,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고대사 심포지엄에서도 그는 기마민족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소위「任那日本府」를 인정해왔다는 사실은 그다지 인식돼있지 않다. 다만 이번엔 日本府가 한반도통치기구가 아니라, 한·일연합왕조의 일본통치기구였다고 설명을 뒤바꿨다. 기마민족설이 어디로 갈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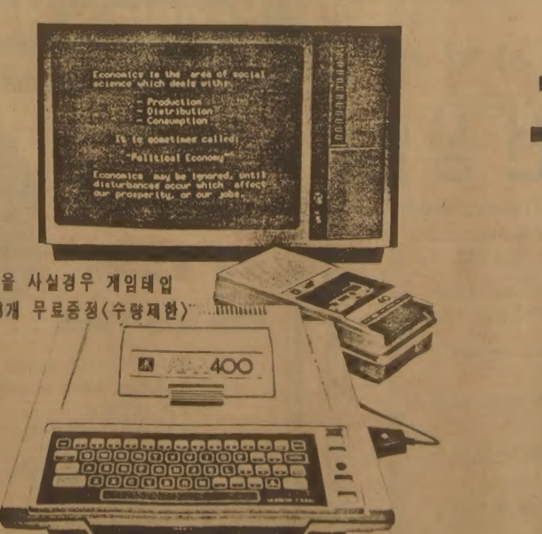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illegible]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ATARI 400을 사실경우 게임테입
3개 무료증정(수량제한)

-취급품목-
*ATARI *COLECO *INTELLIVISION
*C.ITOH'S PRO-WRITER PRINTER
*AMDEK COLOR MONITOR
*각종 교육자료및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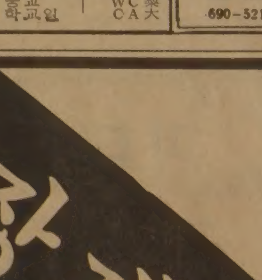
홈 컴퓨타

신장개업

금번 저희가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홈 컴퓨타및 각종 부품, 컴퓨타 교육자료를 구비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개업일 1983년 4월 2일

□이제 자녀교육을 위하여 홈 컴퓨타를 구입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홈 컴퓨타 구입에 관한 상담을 성심껏 해드리겠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Sheridan Mall


COMPUPLACE INC. ☎: 243-0411
1700 WILSON AVE. (SHERIDAN MALL) 김성구, 홍성호

레이건, 「零의선택」 관철위해

對蘇 잠정 妥協案

미사일均衡등 3개案

나토소식통 "내일 제의"

【브뤼셀AP·聯合=聯】레이건美대통령은 오는31일 로스앤젤레스의 한집회에서 유럽배치중거리핵미사일을 모두 철거하자는 「零의선택」案을 관철시키기위한 예비단계로 중거리미사일수를 제한하자는 잠정적인 타협안을 제의할것이라고 브뤼셀의 정통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주 나토회원국 수뇌들에게 보낸 비밀서한을 통해 이같은 재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말하고 레이건대통령은 제네바 美蘇군축회담이 부활절휴가 잠기에 들어가는동안 소련측이 이 새제안에 대해 선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번 제안에서 구체적인 미사일 숫자를 밝히지 않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이 제의할 잠정적인 타협안이 ▲소련이 그들의 미사일을 철거하기시작함에따라 미국이 유럽에 신형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배치, 양측의 미사일수가 같은 수준이 될때 멈추는 방안▲전략핵폭격기를 중거리미사일분야에 포함시켜 양측의 미사일및 폭격기를 2백~2백50개로 제한하는 방안▲양측의 미사일수를 1백기, 핵탄두수를 3백개로 제한하는 방안등3개항중 하나가 될것이라고말했다.

◇별난 抗議 신원이밝혀지지않은 프랑스의 한 의대생이 최근 피에르·모로와수상의 사회당정부가 취한 의료개혁에항의, 프랑스동부의 유서깊은 높이 1백42m의 스트라스부르성당에 동료학생 4명과함께 기어올라가는 도중 아래를 내려다보고있다。【AP】

對決상태 해소위해 니카라과 會談제의

【유엔本部AP聯=聯】니카라과는 28일 니카라과사태와관련한 인접온두라스와의 대결상태를 해소키 위해 양국간에 頂上회담을 개최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빅토르·후고·티노코 니카라과부외상은 이날 속개된유엔안보리에서 이같이 양국頂上회담을제의하면서 회담은 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또 니카라과·온두라스頂上회담과 함께 니카라과와 미국대표간에도 회담을갖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蘇, 전쟁 직접개입

이, 시리아軍 공격하면

【다마스커스AP=聯】소련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주둔 시리아군을 공격할 경우 전투에 직접 개입할것이라고 나자·알·아타르 시리아문화상이 말했다고 시리아관영 티시린紙가 23일 보도했다.

아타르문화상은 이날 이신문과의 회견에서 소련이 개입할 경우 이스라엘 시리아 대결은 局地戰에서 美·蘇가 직접 대결하는 국제전으로 번질것이라면서 미국은 이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타르문화상은 지난80년 체결된 蘇·시리아 우호협력조약이 시리아에대한 소련의 병참및 군사지원제공뿐아니라 소련이 시리아와 함께 직접 전투에 개입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말했다.

蘇 아시아艦隊 最強

절반이상 核추진식

【워싱턴=聯】아시아海域에 배치된 소련함대는 소련의4개함대중 최대규모이며 급속도로 현대화되고있고 美7함대사령관 스테이저·홀롬해군중장이 미국의 시사주간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홀롬중장은 소련아시아함대의 작전지원범위가 아라비아해와 紅海에까지 미치고있다고지적,『더이상의 양적팽창은 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꾸준히 향상되고있어 이 함대소속잠수함1백40여척중 절반이상이 핵추진식으로 현대화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또 『순양함과 프리기트함도 완전 현대식으로 대체돼 소련태평양함대는 公海上의 공격작전능력을 더욱강화할수 있게됐다』고 경고했다.

리비아, 니카라과派兵

가다피, 左翼정권지원을 선언

【베이루트UPI=聯】리비아국가원수 무아마르·가다피는28일 니카라과의 反정부우익게릴라세력을 지원하는 미국과 투쟁을 벌이고있는 니카라과 左翼산디니스타정부에 리비아군대를 파견할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루트에서 청취된 가다피의 이같은 발언은 리비아에서 서방세력축출 13주년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해서 나왔다.

이와관련 리비아의 관영JANA통신은 『니카라과정부가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의 영토와 자유를 수호할수있도록 니카라과에 파견될 리비아군대를 산디니스타정부휘하에 배속시킬것』을 가다피가 밝혔다고보도했다.

한편 타임誌는 4월4일자최신호에서 존·네그로폰테 온두라스주재 미국대사가 現니카라과사태에 깊이 개입돼있다고말하고 일단의 美중앙정보국(CIA)요원들과 파나마에 주둔중인 미군특수부대요원들이 이들 게릴라세력의 니카라과 정부전복활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다고 주장했다.

"美·蘇, 최종적 軍縮해결책 찾아야"

안드로포프, 유엔사무총장과 회담

【모스크바AP·UPI=聯】소련을 공식방문중인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28일 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와 회담을 갖고 軍縮과 아프가니스탄사태및 中東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소련 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페레스·데·케야르사무총장이 안드레이·그로미코제1부수상겸 외상도 배석한가운데 열린 안드로포프와의 회담에서 美·蘇양국 정상이 『말이아닌 행동』으로 『최종적인 군축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고 美·蘇가 정상회담을열어 군축문제를 논의토록촉구했다고 밝혔다.

바르샤바 外相會談 4월에 프라하에서

【모스크바聯=聯】바르샤바조약기구국외상회담이 4월상반기중에 프라하에서 개최될것이라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28일 보도했다.

外信 안테나

이번 외상회담은 지난해11월 前蘇聯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사망한이후 처음개최되는것으로 지난1월 정상회담에서 西方측에 촉구한바있는 불가침조약체결을 재차 제의할것으로 보인다.

西獨내각 公式발표

【본聯=聯】헬무트·콜서독수상은 28일 보수파 국회의원회의에서 새내각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農水産相이 바이에른주 基社黨(CSU)의 이그나츠·키힐레로, 국내문제상(內獨相)이 基民黨(CDU)의 하인리히·빈델렌으로 경질된것외에 나머지 각료들은 모두 유임됐다.

「완전방어」 우주미사일 體制구축

向後 10~12년내 레이저무기이용

【워싱턴AP=聯】미국은 미국전체영토의 방어를위해 레이저무기를 이용하는「절대안전한」우주미사일방어체제를 앞으로 10~12년내에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물리학자 에·파퍼트박사가 28일 전망했다.

뉴욕市소재 私設핵융합에너지연구재단이사장인 파퍼트박사는 회견을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휘센터및 군사기지와같은 미국내 주요목표물을 방어할수있는 보다 제한적인 지상레이저방어체제는 앞으로 7년정도면 갖출수있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軍 캄보디아强이더낫다

佛外相 크메르루지再執權반대

【방콕·뉴델리UPI聯=聯】클로드·셰이송프랑스외상은27일 폴·포트 치하의 舊크메르·루지공산정권이 권좌에 복귀하는것보다는 베트남軍의 계속적인 캄보디아 强點이 더 낫다고말한것으로 베트남 관영통신(VNA)이 28일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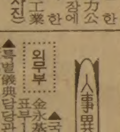
이 통신에 따르면 셰이송외상은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크메르·루지는 캄보디아인민을 대량학살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프랑스는 크메르·루지를승인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셰이송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EC(歐共體)가 지난25일 방콕에서 크메르·루지를포함한 民主캄푸체아 聯政의 결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발표한데 뒤이어 나온것이다.

前나치要員 美陸軍등서 諜者로 수백명

【워싱턴UPI=聯】美국무성과 육군정보당국은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2차대전戰犯으로 지명수배령을 받아온 前나치요원수백명을 첩자로 고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28일 보도했다.

韓國電力 社長에 朴正基씨를 任命



정부는 29일 한국전력공사사장에 현재 한국重工業사장인 朴正基씨(47·사진)를 임명했다.

◇朴사장약력=▲陸士졸업▲中領예편▲正友개발사장▲한국중공업사장

人事異動

외무부 ▲국제연합과장 金永基(駐유엔대표부1등서기관)▲특별儀典담당관실(本部)張世敦▲여권1과(〃)裵永珍▲비상기획관실(〃)韓允燮▲西아프리카과(〃)文偉柱▲경제기구과 申鉉培(외교안보연구원)▲東北亞2과 鄭周憲(中東課)▲본부 潘基汶(국제연합과장)(29日字)

水協 <組合長級>▲城山浦水協組合長 韓性淡▲厚浦〃金容汶▲唐津郡〃金東元▲保寧〃崔鍾贊▲群山市〃崔之愼▲康津郡〃禹孝宇▲光陽郡〃李正秀▲丑山〃林松竹▲濟州市〃高達翊(4月1日字)

本社來訪

▲村瀨誠一씨(中日新聞社事業局文化事業部次長)▲三野重和씨(第5回韓日親善高校招請野球大會團長)▲川戶一彦씨(〃副團長)▲松本久和씨(中日新聞四日市支局記者)

海外토픽

키前越南수상부인 음독自殺기도

구엔·카오·키前越南수상의 부인이 필리핀수도 마닐라의 한호텔에서 자살을 기도해의식불명상태에 빠진후 마닐라 메디칼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측은 키여사의 음독이유나 상태에대해서는 일체함구한채 마르코스대통령의 부인 이멜다여사의 간호를받고 있다고 밝혔다.

키여사는 지난75년 월남이 공산화한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에서 남편과함께 살아왔으며 지난15일에 마닐라에 왔다.【AP】

◇육감적인 칵테일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에서 공연되어 흥행에 크게 성공을 거둔 뮤지컬 「마릴린」에 출연했던 스테파니·로런스양이 28일 런던시내 유일의 美國式 레스토랑인 더·서프라이즈에서 마릴린으로 불리는 새칵테일을 선보이고있다.【런던28日UPI聯=聯】

잔다르크는 王의 異腹동생

44세에 戰死… 異說나와

프랑스의 전설적 인물 잔·다르크는 19세에 화형당한게 아니라 44세에 전사했으며 생년월일도 이제까지의 역사기록과 크게 다르다는등의 이설이 나와 화제。

지난 6여년간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중세기의 史料들을 연구해온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드·세르망즈는 28일 발간된 『잔·다르크와 라·망드라고르』라는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東】

社說

「國民에 의한 政治」

—民正黨이 향도해야할 先進의길

제5공화국의 첫 執權黨으로서 「民族·民主·正義·福祉·統一」의 5대理念 구현을 내걸고 「國民政黨」임을 자부하는 民主正義黨의 全黨大會가 29일상오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創黨후 2년만에 개최된 「祝祭」답게 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을 비롯, 당원및 초청인사 1만6백여명이 참석했다.

全斗煥총재의 致辭는 「先進祖國의 창조」라는 「歷史의 召命」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政治의 先進化」가 촉구된다고 하면서 그 징표를 「국민을 위한 政治」와 「청렴 봉사의 政治」, 그리고 政治人의 公人化, 政黨의 公黨化등으로 풀이한 것이다.

이 경우 政治安定이 政治先進化의 기초임을 지적하였다. 「受惠와 特權의 政治風土를 완전히 청산」할것과 「백만黨員을 平生同志로 길러내는 조직 정예화」가 다짐 되었다.

이번 黨大會에서 채택된 綱領및 基本政策의 개정안은 종전것과 비교할적에 「先進祖國창조」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같은 새指標를 포함시킨 외에는 項目배열이 약간 달라진 정도이다. 하나 綱領에는 「地方自治를 비롯한 民主政治의 발전」, 「民間經濟의 自律的발전을 기하되 公益에 필요한만큼의 計劃機能을 발휘」. 基本政策에 추가된 항목으로 눈에 띄는것은 老人福祉와 體育진흥이고, 青少年문제와 女性人力의 개발로 보태서 언급되었다.

나아가서 黨大會 決議文은 先進祖國창조를 위한 意識改革, 政治의 先進化, 民族統一을위한 主導的 역할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새時代를 여는 첫責任政黨으로서 民正黨이 지난2년간에 쌓아올린 업적을 믿음직하게 평가하면서 열렬한 改革意志를 용솟음치게한 그黨大會를 축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특히 國政安定속에 對話와 和合의 政治를 선도해 온 노력이 긍정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民正黨의 정확한 座標인식을 위해서는 野黨과의 비교, 구시대與黨과의 대비가 소홀히될 바 아니라고 믿는다.

그점 民正黨은 野黨의 民韓·국민黨과 마찬가지로 기본상 保守政黨이고, 「民族의 理念」도 상통된다. 다만 責任性과 改革意志, 未來指向性등이 한결더 力說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구시대 與黨과 대조할적에는 새로운 다짐으로서 特權意識과 獨善獨走 내지 官僚依存性의 배제가 부각되었고 「平生同志」라고 일컫는 黨員精銳化운동이 좋은 착안임을 헤아리게 한다.

하기야 방심이나 해이는 보다 나은 前進에 도움될수 없다는 견지에서 일부 업적의 과시는 그것이 成果인지 當爲인지 겸허하게 自省해볼 필요도 있을것 같다. 가령 「국민의 신뢰와 사랑」도 간단히 장담하기 보다는 어느 한구석에라도 국민대중의 무관심이나 유리현상이 발로되지 않았는지 부단히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국민을위한 政治」는 좋으나 民主的 國政安定은 「국민에 의한 政治」를 실감나게 하는데 입각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綱領과 基本政策도 黨理念에서 우러나오는 體系的一貫性이 진일보 연구되었으면한다. 예컨대 經濟體制도 얼핏보아 混合經濟지향을 강조케하지만, 力點의 설정여하에 따라서는 自由市場의 모델과 計劃機構의 모델 사이를 갈팡질팡하게 될는지 모른다. 시스팀·어프로치의 學際研究에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

새時代의 改革指向型 執權黨임을 자처하는 民正黨앞에는 民主方式으로 「政治의 先進化」를 이룩할 벅찬 과제가 제기된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國民政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괄목期待하고자 한다.

警察官의 執務자세

—피의자變死·書類은닉을 보고

국민의 生命과 재산을 보호하고 명랑한 질서유지를 가장 큰사명으로하는 경찰에게 국민들은 항상 믿음과 큰기대를 걸고 있다. 하나 동시에 그런 신뢰와 기대에 反하는 비위 탈선 불법같은 不幸한 일이 생기면 그에대한 실망도 한 작지않게 마련이다.

한데 널리 보도된대로 경위급의 한 경찰관이 며칠전 모 기업체의 피의자를 連行조사하던중 피의자가 변사한 사건이 발생, 이목을 끌게하고있다. 治安本部는 26일 문제의 경찰관을 폭행혐의로 구속키로하고 검찰을 통하여 영장을 신청, 이를 발부받았다한다(한국일보 29일자11면). 적이 유감스런 일이다.

경찰관이 범죄혐의를 조사할때에 폭행을 가하는 일은 이를 구시대의 폐습으로 돌려야할것이다. 지난날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고문이 자행됐던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任意性이 없는 自白이 自白이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재판과정서 法官이 이를 무시하게되어 있는게 刑事訴訟法의 明文이다. 이 分明한 사리를 문제의 경찰관이 몰랐을리 없었다고 믿을 때, 그의 수사태도는 탈선적이고 人權을 무시한것이었다. 설사 죄가 있다하여도 피의자의 人權은 존중돼야 하기때문이다.

그밖에도 경찰관의 기강과 직무수행자세에 좀 해이와 그늘이 엿보이는 사례들이 근자에 보도되었다. 서울 어느 경찰서에선 소매치기혐의자가 보호실에서 탈주했다 다시 검거된 사건으로 담당경찰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른 서에서는 독직사건관련으로 사표를 낸 교통사고처리전담경관의 서랍과 집에서 62件에 이르는 未處理事故서류를 발견, 이를 재수사하고 있다 한다.

폭주하는 업무분량때문에 대도시의 경찰관은 대부분 奔忙과 과로에 시달리고 제대로 私生活마저 즐기지 못한채 국민의「지팡이」로서 服務에 충실을 다하고 있다.

예컨대 全南光州경찰서의 경우 금년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사가 교통경찰에게 돈을 내민것을 거절하고 이들을 뇌물공여혐의로 처리했다고 전해 졌었다. 비단 光州에서뿐 아니라 이같은 非違不正의 배격과 正當처리현실은 一般化하게 틀림없다.

그러고 보면 앞서 개탄한 폭행·수사같은 탈선이나 그밖의 직무태만·非違不正을 범하는 경관은 경찰內部의 一魚濁水格인 존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一魚가흐려놓는 범위가 사건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서는 마치 여럿이 濁水한것처럼 밖에 보일수도 있다. 앞에 말했듯이 죄가 있을것으로 믿어지는사람을 조사할때라도 그의人權은 법에 정한대로 존중되어야한다. 고문·폭행사건은 이런 관점에서 一魚가 지나치게 濁水한 격이라 할법하다.

또 교통사범은 대개 여러중인들이 보는가운데 現場에서적발되므로 이를 公正하고 신속히 依法處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경찰관이 60여건이나 사건을 움켜쥐고있었던것은 그사실 자체만으로 非違不正이 介在되었음을 증명하는것과 진배가없다.

다시는 일부경찰관의 이런不祥事·不美之事들이 일어나지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선량한 경찰관들은 그 떳떳함과 용기를 잃음없이 직무에 더욱 정진할것을 여기 격려해둔다.

政局往來

"경찰폭력은 日警의 잔재… 수사비 늘려줬더니 고작 그런 일을"

◆與野의 균형적 발전계기되기를

野圈重鎭들은 29일의 民正黨 전당대회에 즈음하여 축하의 뜻과함께 진정한 정치발전과 與野의 균형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것을 당부.

民韓黨의 辛相佑부총재는 『명실공히 집권당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있는 정당이란것을 국민이 확인할수있게 해줘야 할것』이라고 말했고 다른간부들도 『모두가 책임을 질수있는 정당으로서의 발전계기가 됐으면한다』(柳漢烈사무총장) 『정치발전을 통한 民主한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를바란다』(林鍾基총무)라고 한마디씩 논평.

국민당의 李萬燮부총재는 『民正黨의 정강정책이 구호에만 그치지않으려면 야당과 언론의 자율을 존중, 民心의 소재를 파악해야한다』이라고했고 尹錫民부총재도 『이번 全黨大會를 계기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정치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新社黨의 高貞勳총재는 『퇴색해가고있는 개혁의지를 좀더 강력하게 발휘해야할것』이라고 기대했고 議政同友會 黃明秀회장은 『1만여명이 참석한 많은 경비가든 매머드대회보다도 집권당으로서의 정치발전을위해 얼마만큼 노력할것이냐는것이 중요하다』고 한마디.

◆국회서 수사비를 늘려줬더니…

29일의 民韓黨당부회의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韓一合纖이사 金根祖씨 사건과 國費유학생 선발시험 採點착오사건등을 2시간까지 집중거론.

金씨 사건에 대해 辛相佑부총재는 「국회내무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토록 하자」고 역설했는데 林鍾基총무는 『30일 民正·국민黨총무와 접촉을 가져 31일 3黨총무가 만나는 자리에서 常委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답변. 회의에앞서 林총무는 金씨 사건에 대해 『경찰의 폭력은 日警의 잔재로 밖에 볼수없다』면서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수사비를 늘려줬더니 고작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며 引責공세를 펼것을 분명히 했다.

또 國費유학생시험사건에대해 高在淸의원은 『이사건은 행정적 犯法행위의 하나로 문교부가 부정에 개재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으름장.

이에 孫世一의원등은 『철저한규명을위해 국회 문공위를 열도록 당부회의가 뒷받침하자』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을 추궁하려면 國政조사권을 발동해야하는데 그건힘들것같으니 文公委라도 즉각 열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休業상태인 財政委에 불만의화살

이달말로 黨재정이 고갈돼 사무처요원의 봉급등 經常費 지출마저 어렵게된 국민당은 운영자금마련에 머리를 짜고있지만 현재로서는 束手無策.

申喆均사무총장은 29일 바닥난재정을 걱정하면서 『自轉自活을 위해 後援會를 구성하려고 모든노력을다해왔지만 뜻대로 잘되지않는다』고 괴로운 표정.

이같은 財政難타개와 관련, 黨內일각에서는 財力있는 人士들로 구성만 해놓고 休業상태에 있는 財政委에대해 불만의 소리가 솔리고있는데 召集責인 李成一위원장은 『金鍾哲총재와 출국전에 나눈 얘기도있고 기다리는김에 며칠더 기다렸다 귀국하는대로 회의를 소집할생각』이라고 설명.

한편 국민당은 4월임시국회에서 原油價인하의 국내반영률및 아파트등 부동산過熱투기, 경찰수사중 숨진 韓一合纖 金根祖이사 사건등을 집중추궁키위해 이날상오 尹錫民총재권한대행주재로 金翰宣정책연구실장및 전문위원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대책을 숙의했다.

◆民權, 脫黨파동 수습위해 안간힘

民權黨은 지난19일 金正秀총재직무대행 黃明秀·金正秀두 부총재등의 집단脫黨波動을 가라앉히기위해 전당대회준비위를 구성하는등 黨정비에 안간힘.

이를위해 吉基沅총재대행은 脫黨인사들의 「親庭復歸」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28일 가졌고 31일에는 서울 麻浦·龍山지구당(위원장 朴大成)을 시발로 개편대회를 열예정.

民權黨은 5월로 예정된 全黨大會를 앞두고 현재 77개 등록지구당중 위원장이 탈당한 28개지구당을 제외한 49개지구당의 개편대회를 치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法定기준 24개 지구당의 개편대회를 마쳐야만한다.

◆중앙청—果川간 헬機운행 추진

법무·농수산·건설·보사·科技處등 정부部處의 果川제2廳舍移轉에 따라 현재 국무회의실이 있는 중앙청과 果川간의 교통난해결을 위해 고심해오고 있는 총무처는 국무위원용 헬리콥터운항을 추진중.

총무처관계자는 29일 果川청사에 헬리포트를 4월중에 착工, 上半期중 운항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기술적인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탑승대상자는 국무회의등 중요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이나 차관급이 될것이라고 설명.

한편 총무처는 종합청사에 果川에청사를 둔 부처의 장차관용 대기실을 설치하고 현재 상·하오 두차례 다니는 果川—중앙청간 업무용버스를 상오2회, 하오3회로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소망은 오직 예수

부활절 대부흥 성회

□강사·고원용 목사

□일시 : 1983년 4월6일(수)
7일(목)
8일(금)
오후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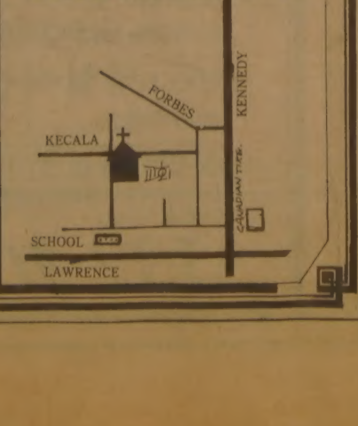
9일(토) 새벽기도 5시30분
성경공부 10시30분
오후 2시
저녁집회 7시30분

□장소·토론토소망교회 35 KECALA RD. SCAR. ☎ 752-9727, 752-9860

고원용 목사

학 력 : 숭대 철학과, 장로회신학대학, 미국 훌리신학교 선교학 석사및 박사학위과정 이수

경 력 : 한국에서 15년간 장로교회 시무, 현재 미국 밸리제1장로교회 담임 국제 I.M.A. 선교회 국제 총무



出帆2期맞는 民正의 과제

정비된 體制·組織바탕 政治力量 발휘할때

黨·國會운영도 민주적으로 活性化

國民들에도 뭔가 새모습 보여줘야

새정치의 주도세력을 자처하며 出帆했던 民正黨이 29일전당대회를 계기로 2期를 맞았다.

민족·민주·정의·복지등을 내세우며 맑고깨끗한 새정치의 旗幟를 내세웠던 창당 당시의 의욕과 의지가 얼마나 구체화되었느냐는 평가는 아직 섣부른지 모르나 民正黨은 지난2년이라는 길지않은 세월이흐르는동안 전진과함께 시행착오등 적지않은 변화를겪었다.

사실 전당대회를 먼저 치른 民韓 국민당에비하면 民正黨은 더욱 많이 변모했다는 느낌이다.

李載灐대표위원의 退陣과 陳懿鍾대표의 浮上, 權正達前사무총장의 途中下車와 權翊鉉사무총장의 등장, 중앙위원과 지방下部조직의 대폭개편과 정예화 그리고 대대적인당원훈련, 黨憲과 정강정책의 손질등 눈에 띄는 변모만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거듭된 변화의과정을거쳐民正黨은이제창당체제의틀을벗어나정비된새체제로 2期를맞지만 앞으로 2期는 지나온 1期에 못지않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것 같다.

앞으로의 2期는 11대국회의 후반기와 시기를같이하고 있으며 85년 12代 總選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하는 시기이기때문이다.

民正黨은 그동안 改革의 분위기와 餘勢에힘입어「限界政局」을 이끌어 올수있었다고 할수있다.

야당이 限界政局의 感을 잡고 그테두리안에서 스스로 움직여왔기때문에 前半2년의 11代국회는 별다른 파란없이 그런대로 순조롭게 지내올수 있었다.

지나간 2년은 어떻게보면 본격적인 정치발전을위한 探索戰에 그친감마저있다.

그러나 執權책임정당으로서 앞으로 2년은 정치선진화와 정치발전등을 겨냥 어느정도 달라져야하며 마땅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게 일반적인 기대며 관측이다.

선거를 의식하지않을수 없는 야당으로서는 전과다른 強度의 공세를 취할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게 마련이다. 야당의 공세는 곧 民正黨에게는 도전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한정국의 테두리안에서 安住하던 與野의 정치패턴이 다소 바뀔공산이크다면 民正黨은지난2년 실험기간동안 다져온 조직과 黨力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정치力量을 발휘할때가 온것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국회活性化」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봄시기가 되지않았느냐는것이 많은사람들의 바람인것같다. 정치의 本領이 국회라면 야당에서 입버릇처럼 주장한 국회活性化문제를 외면할수는 없기때문이다.

새정치가 반드시 조용한 정치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정치의 先進化가 곧 民主化라는것을 되새겨 본다면 국회의 活性化와 아울러 黨內민주주의도 큰몫을 차지한다.

黨운영의 民主化를 위해 黨憲까지 손질했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일부분내지 극소수 인사들에의해 左右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인사는 그문제의 특수성때문에 보안을 요한다고 할수 있으나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이나 주요 黨務가 지나치게 保安제일주의로 나갈경우 다수의사의 참여不能이라는 非民主的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는것이다.

사실상 1백52명의 民正黨소속 의원들중에는 지금까지의 당운영방식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부류가 있는게 사실이고보면 이들의 疎外感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그동안 조직의정비 補強과 현지당원교육훈련으로 民正黨은 일선조직을 많이 다져 기초를튼튼히 해놓았지만 이에대한 꾸준한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기때문에 앞으로도 더많은 노력을필요로할것같다.

특히 지구당위원장들에게 큰짐이되었던 현지교육은 예상보다 큰효과를거두었다는게 民正黨의 자체분석이지만 事後관리가 따르지않을경우 그효과는 점차 떨어질수밖에 없을것이다.

民正黨의 2期는 85년총선을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단단한각오를해야할 것이고 현體制도 그러한점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는것 같다.

民正黨은 다가오는 선거가 2년전激動의 渦中에서 치러진 11代총선과는 양상이 다르다는것을 잘알고 있는것 같다.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與黨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失政이 하나 둘 쌓임에 따라 야당의 공격 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12代총선에서 유리하기보다는 不利해질수가 있기때문이다.

11代 선거에서는 共和黨정권과 維新體制가 종말을 고한 起點에서 출발 했기때문에 民正黨자체가 과격발을 거리가 없었던것이다.

民正黨이 내걸고 있는 정치의 先進化는 곧 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정치풍토는 곧 정치인의 意識개혁에서 이뤄질수있다는 等式에서 볼때 새정치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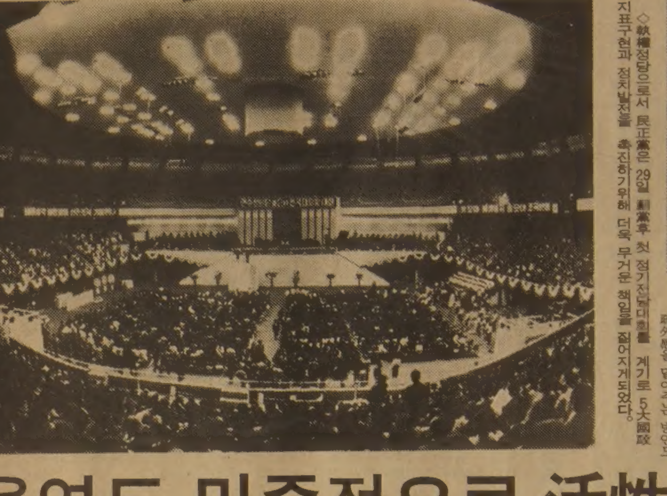
民正黨은 특히 고무신하나라도 받아야 당원노릇을 하던 옛날 관습을 벗어나 黨을 위해 빈호주머니라도 털겠다는 방향으로 일반당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흐뭇한 자랑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지않아 黨員들이 내는 헌금만으로도 당을 운영할수있는「自轉自活」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黨員의 의식개혁은 새정치풍토조성에 기여할것이 틀림없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반 有權者들에게까지 擴散됨으로써 實을거둘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體制정비와 운영의 內實에 注力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국민들에게까지 뿌리를 내리는 노력을 쏟아야 할것이다.

새정치의 主役으로 나선 民正黨이 세월이 흘렀다고해서 惰政치를 재현하는세력이 되어서는 안될것이기때문이다.【黃昭雄기자】



◇執權정당으로서 民正黨은 29일 創黨후 첫 정기전당대회를 계기로 5大國政지표구현과 정치발전을 촉진하기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되었다.

1시간40분 一瀉千里로

—民正전당大會場 이모저모

秩序·능률·박수·환호의 交叉속

목소리·사회솜씨좋은 全黨대회장

○…29일상오10시 서울 蠶室체육관에서 열린 民正黨전당대회는 여당의 잔치답게「질서」와「능률」「박수」와「환호」가 교차되는 가운데 한치의착오도없이 1시간40분간 一瀉千里로 진행。

대회30분전에 이미 入場을 완료한 소속의원, 대의원, 당원등 1만6백여명은 10시정각개회선언과 함께 KBS실내악단의 팡파르가 울려퍼지자 긴장과 흥분이 감돌기시작. 이어 黨의5大이념을 상징하는 푸른색바탕의 黨旗가 3명의 청년당원과 2명의여성당원호위를 받으며 입장하자 모두기립하여 우렁찬박수와 함성을 질렀다.

黨旗를 받은 陳대표는壇上에서 旗를 3차례 크게 흔들었는데 이때 場內는당원들이 지르는 환호와 박수로 귀가 멍멍해질정도.

국민의례와 의식개혁실천선언문낭독 (郭定鉉국민운동부장)에 이어 陳대표와 李載灐前대표위원이 개회사와 창당선언문을 차례로 읽어가는동안 場內는기침소리 하나들리지않았다.

대회가 시작된지 30분이 지나 전당대회의장단 선출 차례가되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蔡汶植 국회부의장을 전당대회의장으로, 尹吉重, 金淑鉉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선출했는데 蔡의장은 노련한의사진행 솜씨를 십분발휘, 단숨에 안건들을 처리해나갔다.

『이의있읍니까』『없읍니다』『통과를 선포합니다』란 사회자의 목소리와 박수가 엇갈리는 가운데 黨憲개정안(제안설명 李鍾贊총무) 강령·기본정책개정안(鄭石謨정책위의장) 중앙위원선출안(王相欣중앙위의장)이 차례로 통과됐는데 박수소리가 점차 작아지자 蔡의장은『우렁찬 박수를 보내달라』고 주문하기도.

보고와 案件통과가 끝나자 사회자인 엠커맨출신의 宋大順의원이 유력한 국회의장후보인 蔡의장을 가리켜「목소리좋고, 사회솜씨좋고…」라고 말해 장내를 긴장케 (?) 했으나「그러니 박수를 보내달라」고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날대회는 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의 입장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뤘다。

대회시작 1시간10분만인 상오11시10분께 全대통령내외가 陳대표·蔡의장·權翊鉉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자 대회장에는 실내악단의 대통령찬歌가 울려퍼졌고 당원들은 모두 기립하여『와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총재의 천연색사진과「정의」「통일」「조국」등의 구호가 담긴 1천여개의 피킷이 대회장을 수놓았다. 특히 이순간에는 1층 실내악단앞에 위치한 大型북을 옥색도포와 갓차림을 한 鼓手가『둥둥』두드려 분위기를 돋우었다.

全대통령은 단상에서 손을 흔들어 대의원들의 환호에 응답한후 참석한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으며「고향의 봄」이 연주되는 가운데 花童으로부터 꽃다발을 증정받고 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나서 다시한번 꽃다발을 흔들어 환호하는 대의원들에게 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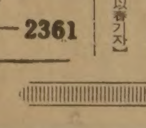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이어 기립한 유공당원 1백20명을 대표하여 단상에 올라온 郭權培(중앙위원), 朴達楨씨(경북도지부홍보분과위원장)등 15명에게 일일이 표창장과 부상을수여하고 악수를 한후 이들을 격려.

이어 全대통령은 15분간 차분한 목소리로 치사를낭독했는데 4차례나 박수가 터져 낭독을 중단하기도했다.

치사가끝나자 대회는 결의문채택, 黨歌제창, 만세3창으로 끝났는데 全대통령은 閉幕선언후 대회장밖으로 나가다 뒤돌아보면서 3~4차례 손을흔들어 당원들의 환호에 답례했다.

○…이날 내외귀빈으로는 국정자문위원인 許政, 尹致暎, 朴忠勳, 高在珌, 李英茱, 閔復基, 李淑鍾씨를 비롯, 劉彰順 韓赤洙재, 鄭濟昌 商議회장등과 프레네리코·가르로스·카르나수바 駐韓 외교사절단장(브라질대사), 마에다(前田利一) 駐韓日本대사등 20여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했다.

【李以春기자】


533－2361

우리民族 예술 蘇聯땅서 名聲

創立 50돌맞는「朝鮮극단」

백80편公演 동포 鄕愁달래

소련땅 중앙아시아에서 예술활동을통해 한민족의 맥을 이으며 한인교포들의 사랑과 명성을 한꺼번에 받고있는한국인 극단이 있다.

소련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극및 우리노래와 춤을 공연, 한국민족예술을 꽃피우고있는 소연방내 카자흐공화국의 조선극단이 바로 그것이다.

소련내 여타 소수민족들이 자기들 고유의 문자와 언어를 갖지못하고있거나 갖고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데비해 이한인극단만은 유독 고고하게 한국의 전통문화와예술을 유지, 발전시켜왔다.

「소연방카자흐공화국조선극단」은 1930년대초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 옮겨온후 줄기차게 한국의 고유한 민족예술을 꽃피워왔다.

지난 9월에 창단50주년을 맞은 이 극단은 현재 1백여명의 단원을 거느린 가장 전통깊고 규모가 큰 해외한국인극단으로 1935년에는「沈淸傳」을 비롯해 셰익스피어의「오델로」등 영국과 러시아의 작품 1백80여편을 상연했다.

현재 이 극단을 위한 교육기관은 타시켄트예술대학의 한국배우과, 알마·아타음악대학 한국배우과, 알마·아타드라마대학 한국배우과등 모두 3개가 있다.

알마·아타 음악대학 한국배우과는 14명의 졸업생을배출했으며 알마·아타 드라머대학 한국배우과에서는 17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있다.

이들 한국 배우과는 무대언어, 대사, 화술외에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등을가르치고있다.

또한 이 극단내에 조직된「아리랑가무단」은 많은 새작품을 가지고 카자흐, 우즈벡, 사할린, 코카사스, 우크라이나등지를 순회공연, 우리 춤과 노래를 40만 한인교포들에게 보여주고있다.

또한아리랑가무단은 우즈벡공화국에 카라야·우보부란우즈벡 국립 필하머니아가야금가무단도 운용하고있다. 이 가무단은 김블라라, 김넬리등 26명의 젊은 한국배우들로 구성돼있으며 기술지도는 김피오트레가 맡고있다. 이들은 민족무용「강물은 흐른다」의 공연및「아리랑」이란 노래를 부르기도했으며 1970년에는 소련 전국대회에서 표창까지 받았다. 이 가무단은 소련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인사이에 대단한 평판을 누리고있는데 한국인들은 이들의공연을 큰명절이나 다름없이 온통 흥분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카자흐「조선극단」은 작년9월 창단50주년기념일을 맞아 모스크바공연을 성대하게 치렀다. 단장은 조정우씨로 카자흐공화국 예술고문으로 지난32년간 이 극단을 키워온데 기둥역할을 해왔다. 조씨외에 이 극단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이미 사망한 계장춘(1911~58)을 비롯 한인극단창설자의 한사람인 김진(배우·1913~66)극단의代母라 불리는 최봉도(여·1911~)를 포함 이함덕, 채용, 연성용, 박춘석등 20여명의 배우들이다. 이 극단은초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 민족의 전통극을 해오다가 1937년 카자흐공화국의 크질·오르바로 이주했다.

1942년 다시 같은 공화국의 플라비 루르갸우 우시 토베로 옮겼고 그후 몇군데를 전전하다가 1969년에 지금 의 알마·아타시로 옮겼다.

이 극단은 알마·아타에 정착한후 양과 질에 있어 완숙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이 극단은 3세대에 걸친 배우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을받은 배우만도 70여명이 넘는다.

1920년대 소련내 한국인의 연극활동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그곳담배공장 한인극단 (김기수, 이마리아, 최봉도등이 참가)을비롯한 5개극단에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30년대에 소련의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 새 극단을 만들게 되었다.【제네바=聯】

메아리

頓死·致死

金昌悅〈編輯委員〉

신문을 보며 頓死라는 말을 생각했다.「급할 頓」에「죽을 死」, 사전에 急死라는 풀이가 나와 있다.

42살 나이의 재벌회사 經理이사라면, 保證手票같은 엘리트일게다. 머리뿐 아니라 건강도 좋았을것이라 짐작이 간다. 그런 사람이 경찰에 불려간지 며칠만에 죽어돌아 왔으니, 그야말로 急死요, 기가 찰일이다. 그게 지난 26일字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그러나 신문을 보며, 어줍잖이 頓死라는 말을 생각한 것은, 경찰의 명예를 생각해서 였다.

하긴 사전에 보면, 頓死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의 원인 이 內因性일 때를 말한다. 法醫學會의 內因性急死와 같다. 外因이 없으니, 어디까지나 自然死다.

頓死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당자가 몰랐던 골병이 터질수도 있다. 이런경우는 剖檢으로 死因이 쉬 밝혀지나, 그렇지못한경우가 종종 생긴다. 죽은 까닭을알수가없으니, 학자들은 特異體質로 돌리기도 하고, 靑壯年急死症候群이란 술어도있다. 이렇게 까닭모를 죽음은생각보다많다. 우리나라에서의 발생빈도는, 2대1쯤으로 男子에게서 더 잦다.

어느 경우건 頓死에는 誘因이 있는 일이흔하다. 육체적행동, 정신적 흥분, 남녀관계·구타등의자극도 誘因이된다. 만일 그誘因이 손찌검등 타인으로부터 온것이라면, 당연히 심각한 말썽이 생긴다.「송장치고 살인난다는 속담 그대로다.

신문을 처음보고 頓死를 생각한 뜻은 이런것이다. 死因이 밝혀질때까지, 死因이 밝혀지지 않으면 더욱, 구설수가 경찰을따라 다니겠지만, 설마 작년에혼쫄났던 경찰이 다시 拷問·暴行·苛酷行爲따위 망신이야 되풀이할라구ㅡ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심정이 부질없음은 27·28일신문에 여지없이 드러나있다. 거기에는 서울에서 釜山에 이르는「任意同行」의 폐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호텔搜査·여관搜査도 여전하다. 이모두는, 尹보살사건과 여대생 朴양사건이 뒤집힌 뒤, 치안본부 스스로가 금지한다고 했고, 그내용을 신문마다 大書特筆한 것들이다.

뿐인가. 사람을 발가벗기고「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니, 경찰은 누구고 시민은 누구인가. 끝내는 剖檢결과 外傷性腦出血이 밝혀졌으니,「생사람 치고 살인났다」고나 할까.

이사건의 심각성은, 낱낱의 용납못할 行態뿐이 아니라, 작년 내내 거듭된 拷問말썽, 법원의 證據主의判決에서경찰이 배운게 없지 않느냐는데 있다.

그나마 작년의 일들은 一線에서 빚어진 일이라, 본부로서는 할말이라도 있었다. 사람이 많다 보면ㅡ 하는 동정도 샀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안본부 직속의, 그것도 경위계급을 가진 간부가 일을 저질렀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경찰간부교육을 받고,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選上」된 엘리트 수사관일테다. 그래서 그는 무슨 超法的인「特拳」이라도 지닌양 생각하고, 국민들은「주먹앞에 平等」한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일이 벌어진뒤, 치안본부는 그 수사관을 暴行致死혐의로 구속했다.「등잔밑을 밝히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처리과정에 의아한데가 없지않다.

그 하나가 일의 처리를 치안본부 자체수사에 맡긴것이다. 검찰의 권위를 빌어 수사하는것이 경찰이 더 떳떳할수 있는 길이었을텐데ㅡ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빵과 가슴을 몇대때렸단」는 경찰의 설명이 自責이라기 보다는 변명처럼 들린다.

그 수사관에 대한 혐의와 적용법조도 그렇다.

경찰이 적용한 暴行致死罪는「3년이상 有期징역」이란 重刑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것은 몇차례 손찌검,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의 문책일 뿐이다. 거리의 불량배도 자칫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마치 事件아닌 事故같다. 정말 그것뿐일까.

그 수사관의 행위는, 暴行致死에 해당함은 물론, 특별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刑法 124조=7년이하 징역)의 혐의가 짙고, 특별공무원의 暴行·苛酷행위 (동 125條=5년이하 징역)와 競合한다. 이 경우 형의 輕重, 사람이 죽고 안죽고가 꼭 문제인 것은 아니다.

불법체포·감금과 暴行·苛酷행위의, 罪質은 暴行致死보다 더 나쁘다. 사람이 안죽었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처벌받아야한다. 그렇다면 경찰의 자체수사부터 그 관계법조문을 아울러 적용해마땅하다. 그래야 불법체포·감금, 暴行·苛酷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 스스로의 다짐과 一罰百戒방침이 그럴싸하고, 競合犯의 法理에도 부합한다.

여하간 일이 저질러졌으니, 수습의 길은 엄정한 뒤 처리에서 비롯된다. 그를 위해서 경찰은, 河英雄형사의 장물절도 사건이 나자, 세상인심은 오히려 경찰관의 박봉에 동정했던 일, 宜寧참사가 났을 때 여론은 경찰士氣가 떨어질까를 먼저 걱정했던 일, 그래서 경찰 처우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옳다. 그처럼애틋하기까지한 국민들의 심정과 답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건수습과 사후대책은 스스로 확하리라 생각한다.

記者의 눈

아파트 坪當 4백만원

아파트한채에 2억7천40만원. 坪당가격은 3백38만원.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기준으로는 평당가격이 무려 4백만원을 헤아린다.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아니 사람이사는 아파트냐 금가루로 버무린 장식품이냐.

그러나 그것은 꿈도 아니요 금가루제품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ㅡ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國稅廳의 특정지역 기준싯가액표에 밝힌 80평짜리 현대아파트(86동)의 신싯가 명세서다.

현실이 꿈의세계와 혼동된것은, 철근과 시멘트를 얼버무려 쌓아올린 아파트 시세가 金값으로 오인되는 것은 그것이 凡人의 상상을 뛰어넘어 터무니 없는 고가로 호가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아파트가격을 그토록 치솟게만들었는가. 학군때문일까, 교통때문인가, 유행때문인가, 아니면 복부인때문인가.

아니다. 학군, 교통, 혹은 복부인의 장난이 아파트투기를 부채질한데 얼마간 기여한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투기원인을 밝혀낼수는 없다. 투기바람은 아파트뿐아니라 토지에도 불었고, 건물, 상가…심지어는 골프장, 멤버십, 한약재, 골동품까지 휩쓸었다.

또 투기바람은 항상부는 것이 아니다. 78년 8·8조치이래 잠잠하던 투기바람이 작년 7월부터 갑자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이두개의 명제의 공통점은 돈이다. 돈이 아니고는 달리 투기원인을 설명할방법이 없다. 돈이 너무 많은데다 돈이 갈곳을 찾지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많은 돈이 임자를 잘못만났다. 눈먼돈이 임자를 잘못만났기때문에 투기를 부채질한 것이다.

국세청의 기준싯가액표는 또하나의 의문을 던져준다. 국세청이 조사한 싯가와 내무부가 매긴 싯가표준과는 엄청난 차이가난다. 현대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싯가는 2억7천40만원인데 대해 내무부싯가는 2천2백16만원. 국세청싯가가 12·2배나 비싸다.

내무부나 국세청이나 같은 정부인데 똑같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다르다. 당연한 결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국세청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데 2억7천만원짜리싯가를 적용하고 내무부는 등록세·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는데 2천2백만원짜리싯가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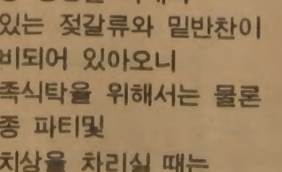
이런현상을 불가사의라고 해야하는가 아니면 부조리라고 불러야 옳을까.

아뭏든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느낌이다. 잘못된것을 바로잡으려면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러면 부동산투기를 잡는 길은? 뻔한 논리를 왜그토록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朴炳潤경제부장대우】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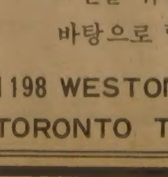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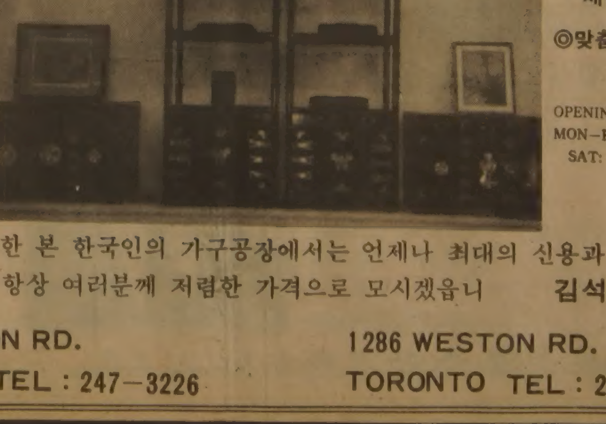
532-1054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옥돌가구
◎한국고전가구
◎동양화
◎액자





◎나전칠기
제작 · 수리
◎맞춤전문

OPENING HOURS
MON—FRI: 10:00—9:00
SAT: 10:00—6:00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 김석환올림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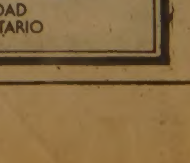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OUT OF THIS WORLD

CARPET CLEARANCE SALE
SAVE UP TO 70%
카펫세일

FREE INSTALLATION
FREE UNDERPAD (스폰지 무료)
FREE DELIVERY (무료 배달)

FOR FREE SHOP-AT-HOME SERVICE CALL:
757-2811



STEWARTS CARPET LAND
1200 KENNEDY ROAD
SCARBOROUGH, ONTARIO

한국일보

국내油價 조정 週內매듭

電力요금도 사우디도 引下통보 "3월遡及"

정부는 국내석유도입량의 51%를 차지하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가격인하를 공식통보해옴에 따라 국내유가및 전력요금조정작업에 착수, 이번주내에 국내유가와 전력요금조정을 매듭지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동자부는 작년도 정유회사의 손익실태를 분석한 결과, 5개 정유회사들이 작년중 換差損등으로 발생한 0·8%의 인상요인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이익을 낸것으로 보고 이를 이번 유가인하에 추가반영할 방침이다.

추가인하폭은 약 1%가량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자부에따르면 사우디는 현재배럴당 34달러인경질유가격을 5달러인하,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지난27일자로 국내 정유회사에 통보해왔다.

또 2월1일부터 28일까지 도입한 원유는 배럴당 4달러를 인하한 30달러로 소급적용 할것이라고 아울러 통보해왔다.

사우디가 유가인하를 공식통보해 옴으로써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하는 10개국중 이란과 쿠웨이트만이 아직 공식통고를 하지않고 있다. 이에따라동자부는내주중으로 계획됐던 국내기름값및 전력요금의 조정작업을 앞당길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번 국내유가조정을통해 산업용 유종인 벙커C油와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가격을 중점적으로인하, 나프타는 현행 배럴당 29·5달러보다 4·4%인하한 28·2달러, 벙커C유는 현재 42·7달러에서 8·7%인하한 39·달러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발전용 연료인 벙커C유가격의 인하에따라 전력요금도 4~5% 인하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자부는 또 원유가 하락으로 얻어지는 석유안정기금및 관세4천7백억원의 용도및 사용처에 관해서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어 금명간 동자부가 최종안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결정키로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하는 기타 국가들의 원유가 인하동향을 보면 ▲인도네시아=34·40달러에서 29달러로 5·40달러 소급인하 (2월 23일부터 적용) ▲에콰도르=30·50달러에서 28·50달러로 2달러 인하 (4월 1일부터) ▲말레이지아=34·10달러에서 28·40달러로 5·70달러 인하 (2월 1일부터) ▲브루네이=34·10달러에서 29·10달러로 5달러인하 (1월28일부터) ▲멕시코=32·50달러에서 29달러로 3·50달러 인하 (2월 1일부터) ▲리비아=35·40달러에서 30·40달러로 5달러인하 (3월 16일부터) ▲이집트=25달러에서 23달러로 2달러인하 (3월 1일부터) 등이다.

호메이니政權 崩壞되면 蘇 이란侵攻…3次戰발발

16일뒤엔 北傀 南侵공격

밝혀진美國防省 비밀靑書 前後百25일 假想시나리오

【워싱턴UPI=聯】美國防省은 호메이니의 死後 소련이 中東지역세력 확장을 위해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것이며 한반도에서도 소련의 이란침공 16일안에 北傀가 南侵을 감행해올 가능성을 군사정책상 하나의 가상사태로 상정해 놓고 있는것으로 28일 밝혀졌다.

美국방성은 약2조달러에 달하는 85~89회계연도의 군사정책과 軍및 지원계획에 관한 1백6페이지의 비밀靑書의 부록으로된 3차세계대전 시나리오를 통해 이같이 예측하면서 미국은 駐韓美軍을 증강, 北傀의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美국방청서는 이 시나리오가 3차대전에 대한 예언이거나 軍배치에 관한 지침서는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이 시나리오의 의도는 세계의 많은 전선에서의 전쟁등 사태의 동시 다발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계획과 대비작업을 판단하기 위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D데이 전후 1백25일간에 걸친 이 시나리오는 호메이니정권이 무너진후 이란국내 政情이 혼란해질 경우 소련은 페르시아지역에 대한 전제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中東지역방어를 위해 이에 대응, 군사대결이 한반도에까지 미치는 분쟁의 동시 다발사태내지는 3차세계대전이 촉발될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는것이다.

國會法 개정안심의 4월末까지 마무리

국회는 28일상오 國會法개정심사小委(위원장 沈明輔의원)를 열고 오는4월4일 제15차小委를 열어, 개정안심의를 서두르는 한편 與野총무가 합의한 小委심사활동을 4월말까지 일단 마무리짓기로했다.

泰、政黨건물 爆彈테러

政局초긴장…사전 발견된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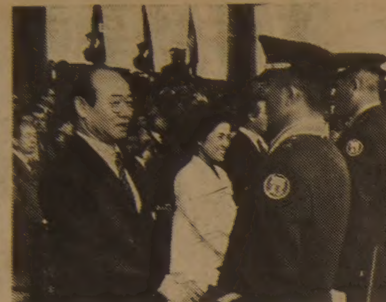
【방콕=聯】타이경찰은 26일 下院해산으로인한 早期總選을 앞두고 民主黨본부앞에서 폭탄폭발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社會行動黨(SAP)당사근처에서 또 다른 폭탄이 사전에 발견됨으로써 타이의 4개주요정당본부건물에 대한 특별 경비에 들어갔다.

나퐁·마하논다 타이치안국장은 이와함께 방콕의 모든 경찰에 왕궁로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탄폭발사건에 대비,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도록 명령했다.

경찰은 25일밤 방콕의 수코타이路에 있는 경비작전사령부 맞은편 民主黨본부앞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개의 쓰레기통이 파괴됐을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직까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民主黨본부앞에서 터진 폭탄과 사회행동당 당사근처에서 발견된 폭탄은 모두 사제폭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폭탄들이 프렘·틴술라논드수상의 聯政을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인民主黨과 SAP본부를 공격하기 위해 장치된것 같다면서 이는 인명을 해치는것보다 불안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내외가 陸士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있다.

"어떤 北傀挑發도 봉쇄

절대적 힘의 優位유지 철벽防禦태세를"

全대통령、陸士졸업식 유시

全斗煥대통령은 28일『北韓공산집단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극복 할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우리는 평소에 미리부터 완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말하고『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을 미리 막고 이땅에 영원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國力을 배양하고 절대적인 힘의 優位를 반드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제39기졸업식및 任官式에 참석, 諭示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北韓공산집단은 심각한 경제난과 族閥世襲체제 강화로 빗어지고 있는 內外의 시련에서 벗어나고자 엉뚱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마저 점차 높아져 가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우리는 지금 우리모두의 소망인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前進의 발걸음을 가속화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목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완벽한 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길은 폭넓은 자율과 개방, 화합속에 국민모두의 능력과 창의를 극대화해 安保力量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은 국민각자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소명감과 그 분야에서 세계제일이 되겠다는 전문가의식으로 충만될때 그 성공적인 결실을 기약할수 있는것』이라고 말하고『따라서 졸업생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바로 선진조국을 창조하는 길이고 나아가서 통일 방안을 하루속히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졸업식이 끝난뒤 교장실에서 黃仁秀교장으로부터 陸士현황을 보고받고 교내에 새로지은 육군박물관의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박물관내부를 돌아보고 陸士앞뜰에 朱木1그루를 기념으로 심은뒤 육사안의 식당에서 軍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중부防壁시설 시찰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27일 상오 약5시간동안 중서부전선 ○○부대와 서울근교의 防壁시설을 不時에 시찰, 北傀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근교의 방벽에 도착, 상황실에 들러 근무장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지휘체계, 통신체계등을 살폈다.

全대통령은 이어 중서부전선의 ○○부대를 찾아 부대장실에서 환담하는 가운데『北韓공산집단은 우리의 내부혼란을 노리는 心理戰과 함께 특수부대 투입등의 무력 도발을 획책하고있다』고 밝히고『가령 南派등의 은밀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들켜도 좋다는 式으로 대규모부대를 침투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美下院議員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8일 하오 청와대에서 美下院歲入위원회 貿易小委의 샘·기본스위원장등 下院의원 7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과 워커 駐韓美대사가 배석했다.

"證券社 통합경위追窮"

民韓、임시國會 대책세워

民韓黨과 국민당은 28일 각각 院內對策회의를 열고 제1백16회 임시국회대책을 논의했다.

民韓黨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原油價인하에 따른 국내油價조정문제와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油價인하에따라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의 대폭修正이 불가피하다고판단, 그간의 低金利체계와 金利격차로인한 總通貨문제와함께 중소기업의 資金難및 부동산 投機대책, 아파트債券입찰제, 證券社의 통합경위등을 집중추궁키로했다.

民韓黨은 또 수입자유화에 따른 農畜産物의 수입이 농민에게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시정책을 추궁키로 했다.

오늘 全黨大會

民正、創黨후처음

民正黨은 29일상오10시서울蠶室체육관에서 대의원 5천8백42명, 중앙위원 3천85명과 당원, 參觀人및 내외귀빈등 모두1만6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創黨후 첫全黨大會를 갖는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심의·의결한黨憲개정안과 綱領및 기본정책개정안을 채택하고 사무처가 10개 市道支部및 92개지구당의 추천을통해 선정한 선출직중앙위원후보 2천7백42명을 새 중앙위원으로 선출한다.

5·55 強震…廢墟된 이란 山마을

◇25일 리히터지진계로강도5·55의 強震이 엄습한 테헤란동북방80㎞지점 산간마을의 모습. 【테헤란 (이란) 27日AP特約=聯合】

서울 地檢長에 李種南씨 任命

정부는 29일자로 李彭雨서울지검장을 의원면직하고 후임검사장에 李種南대검중앙수사부장 (사진) 을 임명, 발령했다.

정부는 또 趙鍾洙서울지검南部지청장도 의원면직하고 후임지청장에 金炯烈서울지검 제2차장검사를 같은날짜로 임명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22만달러밀반출사건과 관련된 인책인사로 풀이된다.

스리랑카首相 오늘한국訪問

프레마다사 스리랑카수상부처가 金相浹국무총리의 초청으로 29일 來韓한다.

프레마다사수상은 4월1일까지 滯韓중 全斗煥대통령을 예방하며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現代조선소 現代중공업등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慶州佛國寺등 불교유적도 둘러볼 예정이다.

社會漫評

「原始」가 아직도…

地平線

권투의 역사는 매우 오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랍의 산토리니도서 출토된 프레스코화에는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하는 한 장면이 있다. 연대가 기원전 1520년이니 그시원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고 하겠으며 아마도 가장오래된 스포츠의 하나로 봄수 있을듯 하다.▼권투의 룰이 처음으로 정해진것은 1734년에서 50년까지 챔피언의 자리를지켰던 잭크·브로튼에의해 1743년 8월16일 영국에서 였다. 그뒤 현대권투의기초가 이루어진 것은 영국 제9대 퀸즈베리후작이던 존·다글라스가 퀸즈베리·룰을 마련하면서 부터 라고 한다.▼우리나라서도 권투와 비슷하게 주먹을쓰는 격투기가 고구려고분에서 볼수가 있다. 조선시대 말기 까지만해도 수벽치기 태껸등의 무예가 있었으나 오늘날 수벽치기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태껸만 명맥을 간신히 잇고 있다. 또 병술서인 병학지남에는도해를 곁들인 권법이 보이다.▼26일 저녁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약관 20세의「장정구」선수는 프로복싱 WBC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을 쟁취했다. 키가 위썬 큰 파나마인 챔피언 일라리오·사파타(24)를 3회2분46초만에 KO로 꺾은 것이다. 현장 관람자들은 말할것없고 TV중계를 지켜 보던 전국 시청자들의 열광 또한 대단했던 통쾌한 승리였다.▼장선수의 이 정상정취는 지난해 9월 그가 사파타에게 판정패한후 반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로서 12번째의 세계챔피언이 된 그의 승리는 글자그대로 피땀어린 노고의 보람이다.또그간 11번이나 세계랭킹 도전에서 고배를 거듭하여 실의와 좌절의 늪에 빠졌던 한국프로복싱을위해 재기의 전기를 마련한 장거였다.▼하나 매사가 다 그러하듯 프로복싱에 있어서도 성취보다 지키기란 더 어려운 법이다. 그런 뜻에서 장선수의 가시밭길은 지금부터라 할수 있다. 승리에 취함없이 오직 세계왕자의 자리를 지키기에 본인 스스로 배전의 정진을 쌓아야할 것이다. 돌레에서 또한 따뜻한 격려가 따라야 하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이민교회와 가정 생활"

〔가정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

Panel Ⅰ 가정문제에 대한 분석
사회자 : 조 성 준(사회사업가)
1.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정문제의 문제점
유 시 홍 (정신과 의사)
2.가정조직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
이 인 숙 (학자회 총무)
3.청년문화 문제의 검토
김 보 경 박사 (임상심리학박사)
※반응 : 김 의 명 (사회사업박사과정)

Panel Ⅱ.가정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
사회자 : 조 경 자 목사
1.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최 등 영 (내과의사)
2.이민가정에 대한 목회
박 희 민 목사 (목회신학박사)
3.기독교가정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김 상 호 목사(목회신학박사)
※반응 : 김 지 일 박사 (임상심리학박사)

Ⅲ.초청강연 : 강사 함 성 국 목사
(구약신학박사·북미학자회장)
"2천년대의 한인 이민교회"
사회자 : 이 상 철 목사
(명예신학박사)

때 • 1983년 4월 9일(토)
오전10시~오후9시
장소 • 한 인 교 회
69 William St. Weston

재캐나다 기독학자회 준비위원회 회 장 : 김 희 섭 부회장 : 박 희 민 총 무 : 김 상 호

砲聲멎은지 30년… 東北亞로 쏠리는 美蘇의 戰略

韓半島 방위 變化 오는가

「호메이니 死後」 가장 큰 變數로

「뉴저지」사세보入港은 蘇極東함대에 경종

휴전으로 이땅에 砲聲이 멎은지 30년이 가까와 온다. 이동안 우리 安保에 북한은 최대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각되어 왔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그 위협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침을 견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미군을 어느규모에서 주둔시킬것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적지않았다. 미국내 정치風向과 상관있던 그런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채 이땅에 남아 한국安保를 보장하는 우산이 되어왔다.

그 우산에 힘입어 한국은 60년代이래 눈부신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미국이 60년代부터는 소련과 72년이후에는 중공과 화해를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의 生存양식에도 地平이 넓어졌다.

비록 키신저式 세계전략의 연장이긴했으나 4강交叉승인이라는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평화정착공식이 주목을 끌기도했다. 통일의 희망을 담보한 실현불가능한것으로 접어두채 우리는 소련·중공과의 접촉 폭을 넓혀왔다. 지난해에있었던 소련정부 고위문화섭관리와 언론인의 서울방문은 한반도긴장완화를 촉

면에서 도움을 있을것이라는 일면이 있어서 주목을 끌었었다. 지난82년은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주최권을 따놓은해인 동시에 오는 9월 IPU(국제의원연맹) 총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확정한 해였기때문에 소련인들의 訪韓은 더욱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졌었다.

또 소련으로 말하면 북한에 남침을 교사했고 중공으로하여금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종용한 장본인이었으므로 더 그랬을것이다.

그러나 그사이 國力이 신장되면서 우리의 安保상황이 세계적 군사力學관계에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음을 유추할수있는 변화가 요즘 잇달아 일어나고있다.

월남전 종결후 세계전략상 미국의 安保우선순위는 ①美洲및 西歐 ②페르시아灣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極東순으로되어있었다. 지역을 기준으로한 이 順位때문에 유럽 혹은 中東에 분쟁이 일어나면 太平洋지역 병력을 빼돌릴수도있다는 이른바 스윙전략이 흘러나와 불안을 안겨준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논란이 어디까지나 소련의 공격을 받았을때상정, 한순수한 의미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있었을뿐이다. 물론 西方의 死活이 걸린 분쟁이 局地的 범위내에서 진화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에반해 이른바 美방위지침 84~88이 밝혀진 연초부터 페르시아灣에걸린 미국과 西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공격적 방어작전」의 무대가 되리라는 조짐이 차츰 드러났다.

미국은 페르시아灣이 공격받으면 북한과 베트남및 沿海州등 소련해안에 반격을가하겠다고 경고해둠으로써 사

동향을 주시하고 의도를 판독하는데만 주력해왔던데 비하면 차원자체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미국은 對蘇전략상 한국이 지닌 비중을 지난1월 공개된 금년도 군사정세보고서에서 유독 강조했다. 「한국은 이지역 평화와 안전에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한국은 또 이지역 동맹국가운데 최대규모의 지상전투력을 갖고있다」고 밝힌 이보고서는 「북한의 해군력증강에 대항해서 동맹국들의 자보급능력을 확보하기위해서라도 한국해군은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東京에서 괌島까지 그리고 오오사까에서 대만해역까지 해상수송로 방위를 일본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은 우리 해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7함대의 작전중점이 인도양을 제치고東北亞로 이동되고있다. 현보유함정 80척을 2~3년내에 1백척수준까지 증강하리라는 7함대는 당장 東北亞에 전력의 15%를 고정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해협의 일본쪽 모서리에있는 사세보(佐世保)에 15년만에 核항모 엔터프라이즈號를 입항시키는가하면 그곳을 核彈을 발사할수있는 토마호크(크루즈) 미사일까지갖춘 뉴저지號의 母港으로 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中曽根)같은 우파인물이 집권함으로 달라진 일본의 분위기, 東海가 소련海로 바뀌어가는 눈앞의 현실이 바탕이된 변화다.

레이건이 對蘇견제 결의를 시위하기위해 떠들썩하게 재취역시킨 뉴저지號의 모항을 사세보에 두기로한건 소련極東함대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는 格이다.

미국측은 한반도 有事시에 대응하기에는 미드웨이號의 모항 요꼬스까(橫須賀)는 너무멀다는 이유를 대고있다.

이경우 유사시 한반도의 의미는 지상이기보다는 東海해상일 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전례 없이 대규모로 벌이고있는 팀스피리트83에 참가한 미군들을 역시 북한의 남침假想에다 東海에서 소련함대와의 대결이라는 또하나의場을 의중에두고 훈련에 임하고있음이 거의 틀림없다.

북한만을 주로 의식하고 안보정책을 전개해온 우리에겐 이제 실로 重大한 韓美日3각안보체제 확립이 불가피해지는 방향으로 상황은 진행돼가고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군사조약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한미, 미일안보조약을 따로 갖고있는이상 실질적으로는 東海에서 한미일 세나라가 연合하는 사태가 올것이다.

7함대가 東北亞로 主力을 옮긴것역시 유연전략의 잠정적 표현으로도 보인다. 아프간사태는 장기화되고있고 中東유전지대에는 미국은 긴급배치군(RDF)사령부까지 만들어 안정을 다져놓았다.

이제 변수는 美국방성의 시나리오 처럼 호메이니옹(83)이 죽고나면 그뒤 이란사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있다.

그때가 되면 함대의 주력은 인도양으로 다시 옮겨질것이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류의 주문이 東北亞동맹국들에게 옮겨질지도 모른다. 그당시까지 中東 인도양을 충돌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소련은 미국은 분쟁이 아시아와 유럽에 동시 파급될것에 대비, 일본으로 하여금 3해협을 봉쇄하고 최소한 2, 3개월 전투를 지속할 능력을 보유해줄것을 요망했다는 본도가 있었다.

거기엔 미국함모가 中東인도양에서 적을 제압한후 東北亞에 도착하려면 2~3개월은 걸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달려있었다.

나까소네의 不沈항모론, 유사시 대한해협봉쇄론등 한반도주변에서 갑자기 對蘇전열을 가다듬는 부산한 움직임은 차분하게 보아야 제모습이 보일것같다.

【金炳武기자】

◇레이건美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가운데 재취역한 전함 뉴저지號. 현대海戰장비를 새로 갖춘 뉴저지號는 대한해협 바로 건너편 사세보(佐世保)를 모항으로 삼고 소련極東해군을 견제하는 守門將역할을 하게된다. 【UPI】

레이건 宇宙兵器 거센 贊反論

"蘇선 이미 무기開發중이다" 贊

"蘇의 先制공격등 자극우려" 反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이건 대통령의 우주병기개발 발표는 미국내에서새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이유는 미국이 이兵器개발에 있어 어느정도 진전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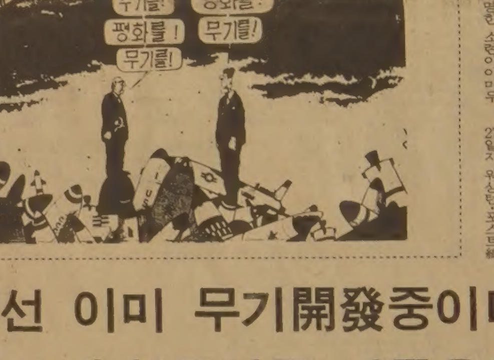
물론 소련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소련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가 이문제에 처음으로 언급, 『미국이 소련을 核위협앞에 무력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며 레이건 행정부는 매우 위험한 길을 밟고있다』고 비난을 퍼붓고 나오자 이런 관심은 더욱 고조됐다.

레이건대통령이 이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회의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국내여론과 서유럽측 반응은 소련에대한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등의 우려가 있어왔고 미국내 과학자들사이에서도 금세기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할뿐 아니라 만약 실제로 사용할경우 對탄도미사일조약(ABM조약)을 위배한다는 전략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킬수도있는 이문제를 앞질러 밝힌처사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이런 미국측 무기배치를 봉쇄하기위해 소련의 선제공격이나 또다른 대응책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우주에서의 대결이 지상으로 연결될수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과는 께 또다른 쪽에서는 1967년 1백7개국이 서명한 외계에서의 核병기사용을 불법화라는 소위외계조약에 서명한 소련이이미우주전을 전제로한 무기개발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아래서 전략억지력을 가져야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연구개발이 당연한 귀결이며 오히려 이런 연구개발을 너무 등한히 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레이건 美대통령과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군비증강을 둘러싼 끝없는 舌戰。

미국의 이부분에관한 연구는 레이저광선과 粒子光에너지로 요약될수있다. 27일자 워싱턴·포스트紙는 미국이 이미 외계에서의 레이저 광선무기연구가 진척되어 그첫실험이 오는 1993년에는 가능하며 그비용은 모두 3백억달러가 소요 된다고 보도했다.

이보도는 이미 국방성이 록히드, TRW, 이스트만 코닥회사들과 우주배치 레이저광선 체제의 중요부분에대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이개발계획자체가 극히 비밀에 속하는 부분으로 모두가 암호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연구에 의하면 光무기를 갖춘 인공위성이 우주에 발사된뒤에 對탄도미사일 파괴기능은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이런 과정 즉 레이저인공위성이 소련 미사일 발사를 감지해서 파괴할때까지 수초내에 이뤄지는 일이며 국방성의 연구목표는 1천개, 소련미사일을 처음 2백50초내에 모두 떨어뜨려야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이미 지적된것처럼 이런 시스템의 첫실험은10년후인 1993년에 가능한데 그것은 현연구자금을 3배로 늘릴경우이며 현재의 예산수준이면 이실험은 서기2천년후에나 가능할것이라고 이연구계획은 밝히고있다.

미국은 이연구에 연간1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자금을 3배로 늘리는 경우 총비용이 모두 3백억달러가 사용된다.

국방성 레이저에 관한연구는 아직 이론적단계에있는 X光에 의한 레이저로 보통 레이저에 비해 훨씬 파괴력이 강해 어떤 종류의 미사일표적도 파괴가능하며 또다른 연구는 전력에의한 에스머(Eximer) 레이저로 이것은 한층 더 공고해진 미사일 파괴력을 가지고있다.

이런 레이저光의 연구와 함께 추진되고있는것은 粒子光으로 단계는 레이저光에 비해 아직 초보적이다.

미국과학자들은 이러한 집중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런병기의 실현성 여부에아직많은 회의를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이 이미 비슷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거대한 粒子光무기를 설치해놓고 있다는등의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아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레이건대통령이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아래서 우주병기를 공개적으로 들먹이는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분야에서의 소련의 놀라운 기술적 진전과 여기서 야기될수있는 상황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3次大戰 125일 시나리오

바國, 開戰 4일후엔 西유럽攻擊

다음은 美국방성이 이란의 호메이니 死後 3차세계대전 촉발을 가정한 D데이 전후의 사태발전 일정이다.

▲D데이전42일=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선발동원을 개시하고 미국은 航母船團을 재배치한다.

▲D데이전37일=소련은 蘇聯서부지역에서대규모군사훈련과 세계적인 해군작전을 실시한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항공기와 해군력을 증강하고 신속배치군을 경계태세에 돌입시킨다.

▲D데이전16일=소련은 1921년 체결된 이란과의 우호조약을 폐기할 용의가있음을 선언하고 이란국경쪽으로의 철도 수송을 강화한다.

폴란드·東獨·체코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한다.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는 戰時戰力강화를 命하며 미국은 미국의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할것이라고 선언한다.

미국은 黃色경보를 발하고 신속배치군을 분쟁지역으로 이동시킨다.

▲D데이전12일=美國은 蘇聯의 이란침공이 임박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부분징집령을 發하며 신속배치군을 中東지역에배치한다.

▲D데이전6일=소련은 이란을 향해 이동하며 이란은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미국은 소련의 자제를촉구하면서 이란에 美軍을배치한다.

▲D데이=소련은 24개사단병력으로 다방면에 걸쳐 이란을 침공한다.

사우디는 美軍을 받아들인다. 소련과 美공군이 이란상공에서 교전한다. 美공군은 蘇전선후방을 공격하고 美·蘇해군이 印度洋에서 교전, 미국은 전면징병을 선언, 징집을 개시한다.

▲D데이 4일후=바르샤바조약기구는 西유럽에대한 침공을 준비한다. 西獨은 軍을 증강하고 기타 나토국가들도 하루이내에 軍증강조치를 취한다.

터키가 美軍에 기지를제공하게되며 美國은 전면적인 나토軍동원을 건의.

▲D데이 6일후=나토는 동원령을 發한다. 나토동맹국한정과 수송기능의 증강조치가 취해진다.

▲D데이 16일후=北傀가 한국을 공격한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최소한90개사단 병력으로 中部유럽과 미국및 나토해군을 공격한다.

프랑스가 나토에 합세한다.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격을 방어하며 駐韓美軍은한국을방어한다. 주한미군이 증강된다.

▲D데이38~40일후=이란에서 미군과 소련군이교전한다.

메아리

神童

잊을만하면 우리 주위에 神童이 하나씩 나타난다. 이번에는 釜山에사는 IQ 170이상의 田炳旭군(한국일보 3월27일자보도). 이런 神童들의 이야기를 들을적마다 光焰센 불빛을 바라본것처럼 眩暈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까지 대단할수 있다는 모범에 감은 驚歎으로서 용기도 생긴다. 그것이 더구나 우리나라에서의 일일때 여간 자부스러운일이 아니다. 한때는 한국의 金雄鎔군이 세계최고의 IQ(지능지수)소지자로 기네스북에 오른적이 있었다.

외국의 경우 최근의 예로는 9세때 미국 아이다호州의 한 대학에 입학하여 자년에 12세의 나이로 학위를얻은 중국인소년 제이·루오군이 있다. 또 9세로 모스크바대학에 들어간 아프가니스탄의 자랑군도있다. 둘다 수학에서 특히 뛰어난 소년들이었다.

미국의 심리학자 콕스박사는 현대의 지능테스트로 역사상의 천재들을 測定한적이 있다. 그들의 어린시절을 조사하고 그 업적에따라 IQ를 추정한 것이었다. 그결과 8세때 詩를쓴 괴테가 210, 萬有引力의 법칙을발견한 뉴튼이 190, 地動說의 주창자 갈리레오가 185, 「모나리자」의 화가 레오나르도·다·빈치가180, 6세에 3개의 악기를 만진 모차르트가 165, 영웅 나폴레옹이 145로 나타났다.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고도로 知的인 사람의 수는 한주먹밖에 안되지만 역사는 이들 위대한 재능들에의해 항상 새로운 문이 열려왔다. 천재들은 주로 예술가, 과학자, 정치가, 철학자가 되었다.

그러면 모든 神童과 천재는 역사의 창조자인가.

우선 지능이 높다는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대해 의견이 구구하다. 기억력은 물론이지만 추리력, 창조력등로 지능과 관계가 있다.

미국의 한 神童은 11세때 어떤해의 어떤날짜를 대면 무슨 요일인지 금방 알아 맞히었다. 드보르자크의「라르고」를 한번 듣기만 하고 연주했다. 그러나 이소년의 학교성적은 좋지않았다. 추상적인 사고력을 필요로하는 문제에는 손을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 소년의 지능을 높다고 할것인가.

지능은 보통 새로운 필요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새로운 문제와 조건에 대한 정신적 적응성이다. 지능테스트법을 맨처음 고안한 프랑스의 심리학자 비네는 지능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력, 창의력, 비판력등을 들었다.

IQ테스트는 지능을 재는 한 편법에 지나지 않지만 가장 큰 약점이 독창적인 사상가나 발명가가 가지는 능력인 개인의 창조력에 대해서는 아무 尺度가 되지못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시카고대학의 심리학자들은 특수한 창조성 테스트법을 만들었다. 보통의 IQ테스트는 대개 하나의 正答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어떤 과제에 대한 회답의 다양성에 따라 채점하는 것이었다. 이테스트결과 학자들은 창조력과 IQ의 크기와는 조금밖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창조력이 강한 학생들의 평균 IQ는 IQ가 높은 학생들의 組보다 23이나 뒤떨어지는데 학교 성적은 거의 비슷했다.

神童이나 천재가 반드시 창조자는 아니다. 「神童은 스무살이 지나면 凡人이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여러 神童들이 커서 이름을 감추어버리고 마는것을 흔히 본다. 한동안까지 사람의 지능은 生來的인 것으로 믿어졌지만 근래에 와서 환경이 바뀌면 IQ가 측정할수있는 지능도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하면 IQ가 50까지 오르내린다. 神童의 凡人化는 이런 환경때문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개의 경우 이들이 IQ만 높았지 창조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천재들은 모두 창의력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척척푸는 神童을 경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무언가를 창안해 내는 사람에게 더큰 敬意를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사람이 곧 천재다. 천재는 너무 가까이서보아서는 안된다. 어느 箴言家는 천재는 커다란 건물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단」고 말했다.

金聖佑 <編輯委員>

記者의 눈

PCB 恐怖

지금부터 꼭15년전 日本 北九州지방에서는「가네미油症사건」으로 10여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었다. 가네미제유공장의 탈취공정에서 PCB가 혼입된 식용유를 그대로 내다팔아 이를 사먹은 주민수천명이 중독됐고결국사망자까지 났던것이다. PCB(폴리鹽化비페닐)란 원래 불연성(不燃性)과 절연성(絶燃性)이 우수한 염소화합물로 오늘날 가전제품 윤활유, 특히 페인트제조업계에서는 각광을받는 공업원료로 손꼽히고있다. 그러나 그사건이후 PCB는 전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됐다. 71년 로마해양오염회의와 75년 세계인간환경회의에서도 PCB를 첫번째의제로 삼을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대표적피해국가인 日本은 지난72년도부터 생산을 중지시켰고 美國에서도 79년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인 규제조치를 실시중이다.

이같은 PCB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되고있다. 水原西湖의물고기떼죽음이 PCB탓인 것으로 밝혀진가하면 京仁지역 주민의 모유에서도 검출돼 오염의 최종대상인 인체까지 PCB의 위험이 노출돼있는 것이다. PCB는 일단 흡수되면 배설되지않고 그대로 축적되며, 플래스틱등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자정(自淨)기능이 없어 전기·화학제품공장 인근의 하천과 주민은 특히 오염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수년전 PCB의 수입제한·사용규제등 공해방지조치를 마련하기위해 정부 관련부처끼리 협의한적도 있었으나 『PCB가 뭐니까』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그쳐버렸다. 그리고 그이후에는 PCB대책이 거론되지도 않고있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어느만큼에서 어느정도나 어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지 파악된 실태자료도 없는실정이다.

외국에서는 PCB의 오염분포를 광범하게 조사하는 한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마약을 다루듯사용량·출고량등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 폐기물로 될 경우엔 제조업자가 회수, 처리하도록 체계화돼있다.

우리나라 공해예방의 맹점은 알면서도 제대로 대책을 실천하지 못하는 점이지만 PCB의경우는 너무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과같은 각종 대책을 수립하기전에 환경행정·공업행정의 당사자들이 먼저 PCB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PCB를 너무나 모른다. 【任龍淳사회부기자】

한국관

기계로 뽑는 짜장면
기계로 뽑는 냉면
한국관에서 그 진가를
아실수 있읍니다!

*돐잔치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대표 나 옥녀

新種도박「토끼놀이」번창

서울에15개소…30분새 5~6萬원잃어

슬러트머신 그림만바꿔 거리진출

「토끼놀이」란 이름의 슬로트 머신類의 새도박이 요즈음 성업 중이다. 슬로트머신은 유기장업법에 묶여 내국인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投錢機의 그림만 다를뿐 슬로트 머신과 같은 이「토끼놀이」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슬로트 머신은 아니라해서 내국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행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붙잡으면 30분사이에 5~6만원씩을 잃게 마련인 이「토끼놀이」는 서울시내에서만도 15개소가 번창하고 있어 이들 업소에는 아침부터 발디딜 틈이 없다.

25일 상오 11시20분 찾아본 서울永登浦의 한오락실은 30대의 투전기중 빈것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코인을사용하는 투전기에는 줄을서서 차례를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10여평 남짓한실내는 앞이 안보일 정도로 어두웠고 보너스코인 떨어지는 소리와 레버(손잡이)당기는 소리로 요란했다.

게다가 투전기에 붙어앉은 사람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는 눈을뜰수 없을 정도였고, 잭포트(jack pot)를 외치는 종업원들의 소리도 귀청을찢는 듯했다.

5천원단위로 코인을 바꿔 사용하거나 점수제로 게임을 하게돼있는 이투전기는 관광호텔에 설치된 슬로트머신의 투전기 그림이 수박·참미·별·종등인데비해 토끼·참미·복숭아등으로 바꿔 그려져 있을 뿐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가 주류로 넥타이 차림으로 열심히 투전기레버를 당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1만원권5장을 투전기앞에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있고 간간이 터지는 잭포트(만점)에 눈이 둥그래지기도 했다.

종업원에의하면 이곳은 영업시간이 되기전에 나오지않으면 자리를 차지하기어렵기 때문에 주로 단골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는것.

龍山區葛月洞에도 오락실 간판을건「토끼놀이」게임장이 있다.

주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전자오락실 틈바구니에「N오락실」이라고 간판을 걸고있는이곳은관허1××호라고허가업소임을강조하고있다. 이곳에도20여대의투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상오 11시30분께 벌써 10여명이 열심히 번쩍식 투전기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유산균음료수 1병과 담배 한갑을 내놓는 종업원은 잭포트가 잘 터진다는 자리로 안내했다.

5천원을 내면 투전기에 8백점의 점수가 들어와 버튼을 한번 누를때마다 20점이 깎이게 되는 벤트식 투전기는 간간이 나오는 보너스 점수에도 불구하고 5분도못돼 게임이 끝났다. 어처구니 없어 멍하니 앉아있으려니 종업원은 보너스로 8백점을 주면서『더하라』고 은근히 권한다. 30분동안에 1만5천원을 털리자 종업원은『8만원을 넣어야 잭포트가 터지는데 겨우 1만5천원 넣고 잭포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곳은 잭포트가 나오는경우 칩을 대신주고 게임이 끝났을 때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도박을 위장하는데 14번대에 앉은 30대 남자는 횟수를 세어가는 성냥개비가 9개나 투전기앞에 놓여 있었다.

이 남자는 4만5천원을넣었는데도 잭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江南區新沙洞에 있는 오락실도 투전기20대를 설치, 그동안 성업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 내부수리를 위해휴업중이다. 이오락실 종업원은 시설보완, 손님을 많이끌기위해 휴업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도박장」이 성업을 하고있는데도 정작 단속 법규가 없다.

「유기장업법」엔 취소규정이 없어 내부시설을 이유로 기껏해야 구류나 벌금뿐이고 정작취소규정이 있는「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는 토끼놀이업소는 해당사항이 되지않는다.

서울시경 보안계장 李東燮경정은 토끼놀이가 분명히 유사사행행위로 지난 81년단속을벌여 그렇게 허가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했으나 아직껏 행정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李계장은 또『업자들이 유기장업법시행령을 근거로 단속에 반발을 한다』면서 시행령에도 호텔등지의 슬로트 머신과 꼭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것만을 투전기로 정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했다.

또 투전기는 유사사행행위로 간주돼 승률도 82.1%로 규정돼 있으나 토끼놀이의경우 승률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경에 의하면 이들업소는 永登浦區에 3곳, 九老區 2곳, 西大門·龍山·江南區등에 한곳씩이 있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이 71년을 전후, 유기장업법에 투전기업소로 포함된것이용해서허가를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관계당국에의하면61년제정된 유기장업법에는 투전기시설이 유기장시설에 포함돼 있어 허가를 받을수있었으나 81년법이 개정되면서 투전기시설은 유사사행행위로 인정돼 제외됐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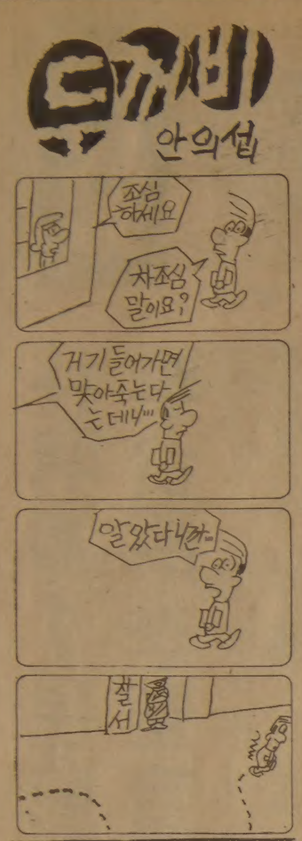
그러나 이과정에서 당국은 기존 허가업소를 경과조치규정에따라 허가를 경신해주었기때문에 도박행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해 줄수밖에 없는 상태다. 【朴珍列기자】

◇봄맞이 人波 北上하는 꽃소식과함께 본격적인 행락 시즌이 열렸다. 3월의 마지막 휴일인 27일, 전국각지의 산과 유원지에는 등산객과 행락인파가 몰려 화창한 봄날씨를 즐겼다. 【27日하오 서울北漢山입구=韓隆기자 찍음】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公園墓苑대표 拘束

京春 분양때不當利得 탈세혐의로

【春川】春川지검 수사과는 30일 공원묘원을 분양하면서 분양금외에 각종명목을 붙여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세금까지 포탈한 경춘공원 묘원대표 崔충관씨(46·서울江南區場草洞193의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및 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80년7월 강원春城郡西面 安保里산90의21 일대 92만5천6백여㎡에 묘원조성허가를 받은후 지난해말까지 朴용회씨(50·春川市孝子3洞)등 5백60여명에게 묘원을분양하면서 평당3만5천원 이상 받지못하게되어있는것을 관리비、조경비등 명목을 붙여 5만~7만원씩받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것.

崔씨는 또 이기간중 총소득 4억7천여만원중 2억3천여만원만 세무서에 소득신고하고 나머지 2억여원을 누락시켜 법인세·부가세·방위세등 4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경춘공원 묘원에는 현재 6백여기의 분묘가 조성돼있는데 최근 분양가와 관리비가 비싸다는 묘지소유자들의 불평이 계속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illegible]】

死因은 外傷性뇌출혈

韓一합섬理事 사건 金경위는 拘束

한일합섬 이사 金槿祖씨(42)변사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는 28일 치안본부 수사1과 金萬熙경위(38)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경위는 지난20일 하오5시께 金이사를 부산中區大廳洞2가 산장여관으로 연행, 21일 하오8시께 감사원 黃영하과장의 수사의뢰를 받고 金이사를 입찰방해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金경위는 이여관 308호실에서 金이사를 조사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옷을 벗긴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뺨을 3~4차례 때렸으며 金이사가 계속 부인하자 밤10시35분께 다시 엎드리게 했다가 일으켜 세우고『회사에 충성했으니 국가에도 충성하라』면서 주먹으로 앞가슴을 때려 졸도케 했다는 것. 졸도한 金씨는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25일하오 3시50분께 숨졌다.

金경위는 지난19일 감사원의 지원요청에 따라 동료2명과 함께 釜山에 파견됐었다.

金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鄭秉燮검사의 청구로 서울형사지법 朴峻洙판사가 발부했다.

"고문의혹 풀어야"

民韓、조사결과발표

民韓黨은 28일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던중 사망한 金槿祖씨(韓一合纖이사)에 대한 자체조사반(반장 朴寬用의원)의 조사결과를 중간 발표, 고문치사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오는4월임시국회에서 사건의 진상을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朴의원은 이날 그동안의 조사에서『金씨의 사인은釜山大의 진단결과 급성뇌경막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 兩下腦部좌측 상흉부 다발성타박상및 찰과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사망진단서로 볼때 구타에의한 고문치사의 혐의가 짙은만큼 즉각적인 재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黨、조사단구성

또국민당도 이날 金根祖씨 사건의 사인규명과 경위파악을위해 자체조사단(趙炳奎、曺德鉉、魯且泰의원)을 구성、釜山에 파견했다.

22萬弗사건관련 姜鍵用씨 징역7년 求刑

대검중앙수사부 辛建부장검사는 28일 22만달러 밀반출사건 관련피고인을 보석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법원장 비서관 姜鍵用피고인(56)에대한 변호사법및 외환관리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姜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4천54만3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석청탁을알선한 브로커 吳吉鉉피고인(41)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하오1시30분 서울형사지법 魯元旭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辛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姜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범행결과가 법조계 전체에 가져다준 후유증이 매우 큰점등으로 미루어볼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姜피고인은 지난해 8월4일 起亞관광대표 韓台圭씨(45)로부터 미화 22만달러 밀반출사건 관련, 구속돼 서울지법 南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李京子(42·음식점 大苑閣주인)李在完피고인(36·미투리제화대표)에 대한 보석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14일 구속됐었다.

美도피 2만4천弗 어제 국내로 회수

한편 姜鍵用씨가 美國으로 밀반출시켰던 미화3만4천달러가운데 2만4천달러가 28일 국내로 회수돼 외환은행西小門지점에 입금됐다.

姜씨는 지난77년8월부터 지난해 9월하순까지 모두8차례에 3만4천달러를 환전, 생질과 딸을 통해 미국버지니아주스프링필드市에사는누나에게밀반출시켰었다.

자기 反省하라 兪대법원장 訓示

兪泰興대법원장은28일『최근 사법부내외의 일부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고 있다』고 지적,『특히 감독관직에있는 각급법원장은 끊임없는 자기반성과함께 계속적인 지도、감독、확인으로 사법부 정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상 張京錫소위 陸士 39期졸업식

육사제39기졸업및 임관식이 28일 상오화랑대에서 全斗煥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 군고위장성등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張京錫소위(24·사진·培材高출신)가 받았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이날 졸업식에 이어 화랑연병장앞에 신축한 동양최대의 육군박물관 준공식도 거행했다.

38억원의 공사비를들여 지하1층·지상3층의 원통형 석조건물로지어진 박물관은 원통형 전시실과 소극장 세미나실등 부대시설을 갖추고있으며 2천9백42점의 군사유물을 소장하고있다.

腦炎…숲모기도 조심

국립保健院 바이러스注入 증식확인

體內서 越冬가능성

日本뇌염은 큐렉스모기(일명 빨간집모기)뿐만아니라 숲모기에 의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보건원 연구팀은 최근 남해안에서 채집한 토고숲모기에 뇌염바이러스를 주입, 2주동안 키운결과 뇌염 바이러스가 토고숲모기의 체내에서도 증식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험결과는 뇌염바이러스가 숲모기 자체나 이들의 알 또는 유충을 통해 월동(越冬)할 가능성여부를 밝혀내는 실마리가 되는 것으로 일본뇌염이 지금까지는 큐렉스 모기에 의해서만 증식,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겨울에는 큐렉스모기가 채집된 일이없어 뇌염바이러스의 월동(越冬) 방법이 학계의 주요 연구과제였다.

국립보건원 白承福병독부장은『이번 연구결과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서『앞으로 숲모기의 알이나 유충에 대한 연구및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뇌염바이러스의 증식과 매개등에 관한 실험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40代, 불구비관自殺

【榮州】27일 낮12시께 경북榮州市可興1洞 1381의7 권영화씨(30)집에세들어 살던 문수홍씨(42·무직)가 불구인것을비관, 방안에연탄불을피워놓은채숨져있는것을문씨의처장재숙씨(38)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illegible]】

昭陽湖 배끼리衝突

週末관광객 6명 重輕傷

【春川】27일 하오2시께 강원春城郡新北面泉田5里 소양강 다목적댐 선착장으로부터 청평사 방면 3㎞지점 소양호에서 주말 관광객 80여명을 태우고 가던 조양호(선장 김흥섭·29·10톤급)와 승객25명을 태운 청탑호(선장 문종석·21)가 충돌, 조양호에 타고있던 서원양(10·서울江西區新亭洞1279)의 왼쪽 손가락이 잘리는등 조양호에 타고있던 6명이 중경상을 입고 春川市 인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하오1시40분께 조양호가 소양댐 선착장을 출발, 시속 6노트로 운항중이었는데 이보다 10분늦게 출발한 청룡호(선장 김창섭·22)가 시속12노트로 조양호를 앞질러 가면서 파도를 거세게 일으켜 선수를 왼쪽으로 꺾는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청탑호가 조양호의 왼쪽 선수를 들이받아 일어났다. 【[illegible]】

美貨17만弗 몰래 갖고나가려던

印尼여인 구속令狀

치안본부외사과는 28일 金浦공항에서 미화 17만달러를 은닉, KAL기편으로 출국하려던 인도네시아국적의 스리레드·제키스프·탑허양(21·무직)을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레드양은 지난26일 17만달러와 1캐럿짜리 다이어반지 1개(싯가 6백만원)를 허리띠와 몸속에 숨겨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터미널 버스3대 원인모를불, 全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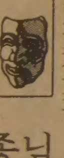
【浦項】28일상오 4시께 경북浦項市龍興洞 시외버스터미널에 세워둔 한일여객소속 경북5아3137호와 경남5아2292호및 경남5아2337호등 여객소속 시외버스 3대에 원인모를화재가 발생, 버스내부가 모두 불에타 4천8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illegibl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종지기 5代

普信閣을 지키는 趙珍鎬씨

"태어날때부터「종님」께 바쳐진몸"



우리나라 사람들은「家業」을 계승하는 전통이 약하다. 커다란 회사라면 2세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것이 당연한것 같으나 오랜전통을 자랑하는 가업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계승하려 하지않는다. 일류 제화공이 일류대학을 나온 아들에게 뒤를 이으라면 가능한수 있을까.

5대째 鐘路 普信閣의 종소리를 지켜온 감시원 趙珍鎬씨(56·사진)는 家業을 이은 긍지속에서 사는 별난 사람.

『종지기가 대단한 家業이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대로「종님」에게 바치는 정성은 지극하다.

趙씨의 출생지는 鐘路2街102번지. 바로 普信閣의 전주소다. 이때문에 趙씨의 선친도『너는 태어날때부터 종님에게 바쳐진몸이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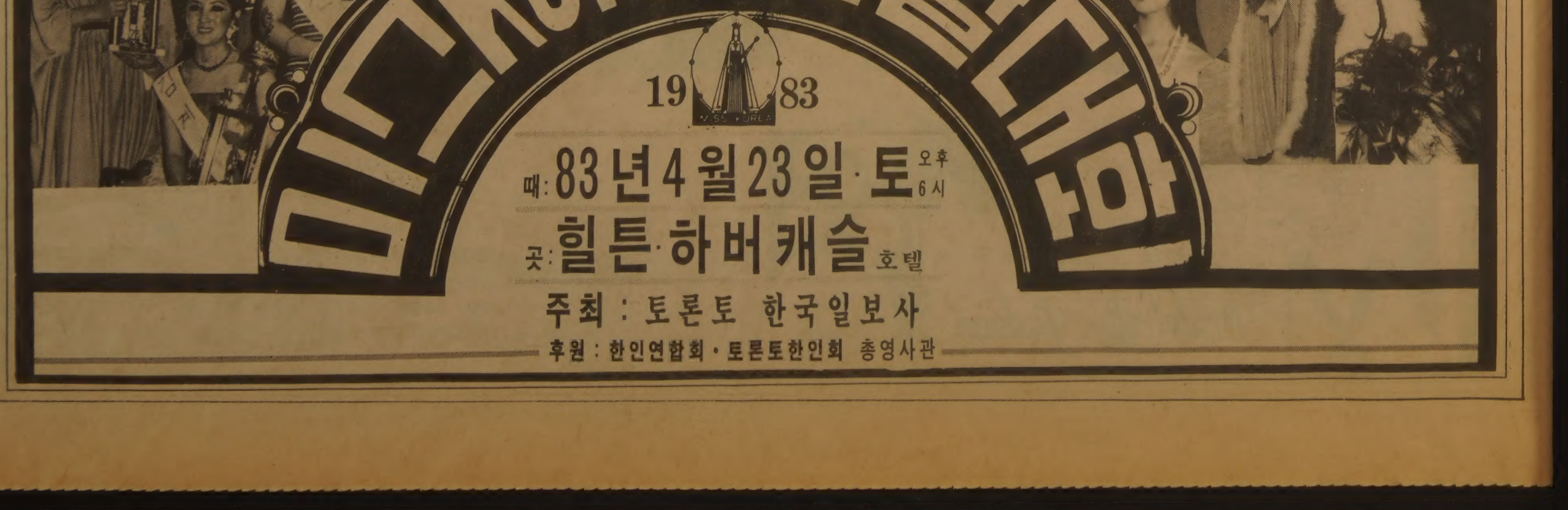
趙씨의 선친 趙漢伊씨는 장사였다. 궁중씨름대회에서 우승, 李垠공위병이 되었다가 세자가일본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선대에서 돌보던 普信閣지기란 가업을 계승했다. 그는 일제가 普信閣종의 이미지를 흐리기 위해 종각옆에 공중변소를 지었을때 4년간의 투쟁끝에 이를 철거시키기도 했다.

趙씨는 종지기5대동안 자기집안에서 보신각종을 20만번쯤 쳤을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8·15해방의 감격을 전국에 알렸던 종소리와 해방1주년을 맞아 李承晩박사와 金九선생이 손을잡고 종치던 광경이 가장 돋보였다고 믿는다.

趙씨는 항상 높이3m18㎝、직경2m28㎝、두께32㎝인 종을 바라보면 한국의 얼을 지킨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종을「종님」이라 부르고 제사까지 지낸다. 하나「종님」이 종구실을 못하는게 마음아프다. 옛날엔 정오와 새벽4시 통금해제시간엔 33번, 자정에 28번 울렸으나 지금은 除夜에나 들을수 있다. 그나마 종이 금이갔다해서 조심스럽기만하고 아무리 울려도 그소리는 고층빌딩에 막혀 鐘路일대에서 들릴뿐이다.

종각을 시멘트로 개축한것도 도통 마음에 들지않는다. 아무리 들어도 나무종각에서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趙씨의 恨속에 조상의 것을 허무는데는 천재인 오늘의 한국인이 투구리고있다. 【宋大洙기자】



明知大 霸權은 어디로… 國民銀

대통령盃축구、東國大·韓一銀 꺾고 결승에

朴明濬 7분前 헤딩슛 明知
李台熙·李聖吉 1골씩 國民

明知大와 國民銀行이 제3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 覇權을 놓고 한판을 벌이게 되었다. 明知大는 28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준결승전서 경기종료 7분을 앞두고 HB 朴明濬(20·대전상고출신)의 문전 헤딩 골로 東國大를 1-0으로 제압, 창단이후 처음 이대회 결승전에 올랐다.

73년 우승, 지난해 준우승팀인 國民銀行은 韓一銀行과의 준결승전서 FW 李台熙(24·산업대출신)의 선제 헤딩골(전반28분)과 후반 9분 HB 李聖吉(25·동아대출신)의 결승골을 묶어 2-1로 승리, 우승을 노크하게 되었다.

이날 경기장에는 3만여 관중이 꽉 들어차 열광했다.

지난해 추계대학연맹전 우승·전국체전 준우승팀인 明知大는 호화멤버를 갖추지 못했으나 투지와 짜임새있는 팀워크으로 東國大를 격파, 상승세를 타고있다.

明知大의 공격陣을 이끈 장신 盧仁鎬 李千興 趙允煥 申東鎬이 부지런히 뛰어 주도권을 잡아, 전후반 슈팅수에서 19-3으로 東國大를 압도했다.

國民銀行은 전반28분 왼쪽에서 코너킥을 얻어 千秉浩가 문전으로 볼을 올리자 순간 감각이 뛰어난 李台熙가 헤딩슛을 성공시켜 1-0의 리드를 잡고, 후반9분 李聖吉은 白明鉉이 내준 볼을 받아 독주끝에 두번째 득점을 올렸다.

개인득점 8골로 이대회 득점레이스 선두를 달리던 韓一銀行의 FW李相龍(22)은 이날 전반30분께 國民銀行 FB金鍾萬을 심하게 차 징, 퇴장됐다.

韓一銀行은 후반13분 方允川의 오른쪽 코너킥을 薛廷賢이 머리로 받아넣어 영패를 면했다.

◇준결승 전적
明知大 1(1-0 0-0)0 東國大
國民銀行 2(1-1 1-0)1 韓一銀行

◇"꽂혔다" 결승골의 순간 경기종료7분전 明知大 FW朴明濬(中·7번)이 東國大문전에서 헤딩슛을 성공시킨후 기뻐뛰고있다.

中央大 "長身시대" 열다

大學농구、延大도 격파… 15年만에 우승

中央大가 지난 68년 팀 부활이래 15년만에 처음 대학농구 정상에 올랐다. 27일 장충체육관서 폐막된 제20회 춘계 대학 농구 연맹전 최종일 경기서 中央大는 신인 金裕宅(1m97)이 26점을 올리는 활약과 韓基範(2m)의 리바운드로 延世大를 87-83으로 격파, 5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高麗大는 慶熙大를 92-65로 대파, 3승 2패로 延世大와 동률을 기록했으나 승자승 우위 원칙에 따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中央大는 이날 延世大의 속공에 말리고 吳世雄에게 잇따라 슛을 허용하여 전반서 45-39로 뒤졌으나 후반 들어 朴慶洙을 기용, 朴과 金裕宅이 연골 5골을 성공시켜 49-47로 역전, 그여세를 몰아 10분께 67-57로 앞섰다. 延世大는 1분50초를 남기고 올·코트·프레싱을 펴 46초를 남기고 85-81까지 추격했으나 끝내 中央大의 지연 작전을 깨지 못했다.

◇최종일전적
중앙대 87(48-38 39-45)83 연세대
고려대 92(50-44 42-21)65 경희대
국민대 103(46-40 57-44)84 한양대

◇개인상 ▲최우수=鄭虎洙(중앙대) ▲미수=金鎭(고려대) ▲신인기=鄭德和(연세대) ▲인기=金裕宅(중앙대) 兪載學(연세대) ▲지도=鄭奉燮(중앙대코치)

▲동순위=①중앙대 5승 ②고려대 3승2패 ③연세대 2승3패(이상승자승) ④국민대 2승3패 ⑤한양대 2승3패(이상승자승) ⑥경희대 5패

白仁鐵 5防성공 26연속KO勝

프로복싱 중량급의 강타자 白仁鐵(21)이 26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을 방어했다.

「2防」부터가 險路

쫓기는 입장된 챔피언張正九

張正九(20)가 사파타(25·파나마)와의 두번째 타이틀전에서 3회 KO승을 거두고 WBC라이트플라이급 새 챔피언이 됐다. 쫓아가던 입장에서 이제 쫓기게된 張의 1차방어전 상대는 WBC 동급1위 헤르만·토레스(멕시코).

張이 소속된 極東프로머션에서는 『張의 첫번째 방어전 상대는 이미 약정(約定)으로 묶여있다. 약정에 의하면 張은 6월중에 토레스와 타이틀 방어전을 갖기로 돼있으나 대전장소를 가능한한 한국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레스는 멕시코출신이나 지난해 「가네히라스캔들」의 장본인이었던 가네히라씨의 적극지원아래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선수다. 토레스는 이미 한국에도 알려진 복서다. 지난해 鄭鍾寬과 문화체육관서 대결, 9회 KO승을 거두었으며 지난 20일 姜順中(한국플라이급 챔피언)과 東京고라쿠엔홀에서 10회전을 벌여 판정승했었다.

姜順中-토레스 대전을본 국내전문가들은 姜이 이겼거나 최소한 무승부 이었다고 진단, 토레스의 기량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張正九측에서는 한국선수와 싸웠던 토레스의 경기필름을 입수,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토레스는 167cm의 파이터이며 훅·어퍼컷등 다양한 펀치를 구사하나 張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틀롱런을 위해서는 토레스에만 주의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세계 라이트플라이급에는 내노라하는 강자들이 많으며 챔피언의 타이틀보유기간도 어떤 체급보다도 짧다.

MBC 복싱해설가 韓寶榮씨는 張이 스태미너를 기르는데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正九는 훌륭한 반사신경을 갖고있고 펀치의 정확도·연타등도 손색이 없다.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스위치복서로 기량은 뛰어나다고 볼수있으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스태미너다』(韓寶榮씨)

사파타가 의외로 무력하게 굴복하자 일부 복싱팬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고 『혹시 돈으로 챔피언자리를 산게아니냐』고 극단적인 의심을 갖고있는 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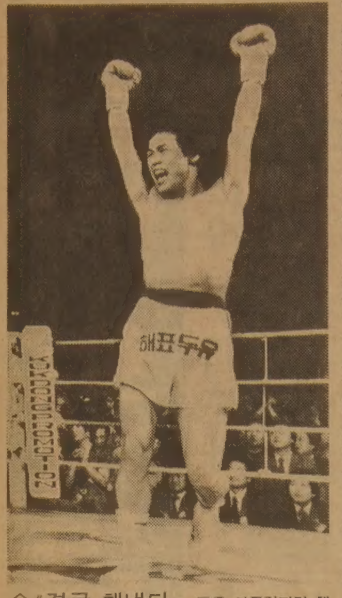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사파타의 몸놀림이 현저하게 둔화됐지만 이것은 체중조절 실패때문이라고 풀이했다.

前 WBA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金煥珍은 『체중조절이 경기승패의 50~60%를 차지한다. 6~7kg을 빼려면 10일동안 고생해야 한다. 갑자기 체중을 빼면 모든것이 귀찮아져 달려오는 택시도 제대로 피할수 없다』고 체험을 털어 놓았다.

국내선수로 체중문제로 고생한 대표적선수는 前WBA밴텀급 주니어 페더급챔피언 洪秀煥, 前WBC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金性俊, 前WBC슈퍼라이트급 챔피언 金相賢.

복싱선수에게는 적정체중을 유지관리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金仁培기자】



◇"결국 해냈다" 꿈은 이루었지만 챔피언의 길은험난하다。張正九가 王座를 차지한후 두손을 들어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大田=權周勳기자】

同체급 내노라는 強者많아
6월중 1位토레스와「1防」낙관
스태미너 쌓으면 롱런가능

◇WBC L플라이 3월랭킹 (2월24일 발표)

①	헤르만·토레스 (멕시코)
②	레이날도·베세라 (베네수엘라)
③	루페·마데라 (멕시코)
④	張正九 (3월26일 챔피언됨)
⑤	조이·올리보 (미국)
⑥	소트·치탈라다 (태국)
⑦	金煥珍 (한국)
⑧	아마도·우루수아 (멕시코)
⑨	칸디도·데예스 (멕시코)
⑩	이시드로·페레스 (멕시코)

東京탁구 對陣발표

한국男女 1部A·B組에

【東京聯合】 제37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오는 4월28일 도쿄(東京)에서 개최되는 이대회의 각국 남녀팀별 대진표를 발표했다.

이 대진표에서 한국남자팀은 1부A조에, 여자팀은 1부B조에 각각 속해있으며, 中共의 남녀팀은 모두 제1부 A조에 속해있다.

또한 북한남자팀은 1부 B조에, 그리고 여자팀은 A조에 각각 속해있는데 남녀팀 제1부 A, B조는 최강16개국팀으로 각각 짜여져있다.

◇조편성

◆남자1부 ▲A조=한국 중공 체코 프랑스 유고 스웨덴 서독 미국 ▲B조=헝가리 일본 영국 폴란드 북한 이탈리아 소련 덴마크

◆여자1부 ▲A조=중공 북한 서독 헝가리 체코 유고 프랑스 네덜란드 ▲B조=한국 소련 루마니아 스웨덴 일본 영국 필란드 오스트리아

大學야구 "홈런豊年"

東亞 全大永만루·建國 安昌完연타석

사령탑을 魚友洪 前국가대표감독으로 바꾼 東亞大가지난해 대학야구 최강(3관왕)의 면모를 발휘하며 첫승리를 올렸다. 28일 서울운동장에서열린 춘계 대학야구리그 3일째경기에서 東亞大는 6번 全大永의 만루홈런, 4번 金漢兆의 투런 홈런등 11안타를 퍼부어 전원1년생으로 구성된 慶南大를 11-1로대파했다.

建國大는 6번지명타자 安昌完의 2타석 연속홈런(4점)、崔桂榮의투런홈런등으로 약체檀國大를 15-4로 누르고 B조선두에 나섰다.

東亞大는 2회초 2死1·2루에서 8번 田龍雨의 중전 안타등 연속2안타로 2점을 선취하고 3회초에는 4번金漢兆가 좌전안타로나간 2번 黃允泰를 2루에놓고 홈런을 때려 다시 2점을 추가했다. 5회초에는 포볼2、데드볼 1개등 불로소득의 만루에서 6번 田大永이 중월1백20m의 장쾌한 홈런을 날려 금년 시즌 첫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제3일전적
▲B조
단국대 (2패) 000 000 310-4
건국대 (2승) 113 071 11×-15
▲홈런=安昌完(5회3점·6회) 崔桂榮(5회2점·이상건국)
동아대 (1승) 022 042 010-11
경남대 (1패) 000 001 000-1
▲홈런=金漢兆(3회·2점) 全大永(5회만루)

◇27일전적
▲C조
영남대 202 000 201-7
부산산업대 (1패) 102 010 000-4
성균관대 100 400 000-5
▲A조
한양대 (1패) 210 000 100-4
원광대 (1패) 000 000 000-0
연세대 (1승) 100 010 00×-2
▲홈런=金聲來(1회·연세)
▲D조
인하대 (1패) 000 000 001-1
동국대 (1승) 100 203 00×-6
▲홈런=盧亨根(9회·인하대)

張吉山 <1702>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62)

이렇듯 정호명은 한 인재이었음에도 백두에 행전 치고 숙박업이나 하는 면주인에 지나지 않았다。정호명은 그의 성격이 호방한대로 봄 가을에 열심히 장사하고 동절에는 매사냥도 다니고 제 사촌 아우 정만업이와 더불어 호협한 시골 장정들과 사귀기를즐겨하였다。마침 한가위 지난뒤라 행객도 뜸하고 지방 관리들의 출행은 아직 조세철이 아니라 호명은 무료하던 판이었다。시절이 좋을제는 한양에 들어가 안면있는 자들과 화초방 출입이라도 하겠건만, 때가 흉한 뒤끝이라 모든 세간 인심이 각박하였다。그저 끼니 안놓치고 식구끼리 밥상 받는 것만도 대견한 일이었다。저녁 상을 받는데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정만업이었다。

『어、니가 웬일이냐?』

대청에 앉은채로 호명은 심드렁하게 내지르면서도 속으로는 의아하였다。시방 철이 수수할 시절 아닌가。마당에 부지깽이가 걸리적거리며 한창 한다는 바쁜 때에 그가 수십리 길을 저녁에 온것이다。

『아이구 나 밥좀 주우』

『원 자식두、늬이 논에 나락은 다 가을 멀구 만났냐? 여기 와서 밥 찾겐』

『석 삼변 흉황이라더니 이 집 밥상을 보니 거짓말이로군』

호명의 아내가 아이들 사이에다 밥 그릇과 수저를 놓아주며 배시시 웃는다。아이들도 꾸뻑 인사를 한는데、만업이는 다시 물었다。

『사랑에을 손님없지?』

『너 잘 방 없을까봐 미리 맞추냐。요샌 관것들 나다니지 않는 철이다』

『잘 되었군。오늘 내손님 좀 받우』

『우리 없이 객점인데 네 손님 내 손님 가리겠니』

하면서 정호명은 무언가 낌새가 다르다고 느꼈다。그가 공연히 동무들과 만나서 놀려고 농사일 다 팽개치고 수 십리를 달려온 것은 아니리라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사랑방 좀 치워두지』

아내에게 그저 이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그들은 밥상을 물리고서 단둘이 사랑방에 앉게 되어서야 얘기가 오갔다。

『손님이 온다니…어떤 자작들야?』

『내가 한번 얘기한적있지。지난번에 한양에 삼번 올라갔다가 마방에 맞는놈 사귀었다구』

『그래 이 골에 산다구 그랬든간』

『맞아 시내비골 살지』

『거긴 모두 드난살이들 아니면 타처에서 떠돌아온 것들이나、아니면 행상아치들이 살터인데』

정만업은 정색을하고 말하였다。

『호명 언니、그래 언니 같은 대장부가 이러한 말단 임여으로 남의 밥 중이나 들며 평생을 마시쳐야 옳단 말이우?』

『온 별 시러배 자식 보겠네。야、임마 너 그따위 소리 지껄이려면 우리집서 처먹은 밥값내구 얼른 염병할루 내쳐라』

『내가 지금 농 하자는 거 아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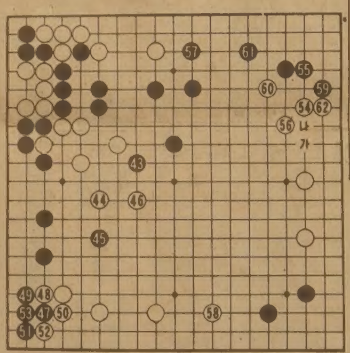
『나두 아냐。아닌 밤중에 종주먹질이라고 공연히 남의 부아를 돋구는 거냐、뭐냐。그럼 어떡허냐、이 짓이라두 안허면 누가 새끼를 거저 먹여준대。내가 속내를 다 알고 하는 말이지만、현 같은 커녕 찰밥 만호한 자리라두 얻어 나가는 놈 치고 쇠도적 아닌 놈 못봤다。그래 그 시내비골 사단는 네 동무 놈이 무슨 벼슬아치 끄나불이라두 된다더냐?』

名人战

제14기 挑战者決定리그

제13局 第4譜 43~62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奉洙〈2勝1敗〉
黑 (4段) 姜勳〈2勝1敗〉



黑43、45가 문제수

徐7단은 원래 대국중에 잡담을 잘안하는 편이고 姜4단역시 시종일관 열중하는 편이어서 그들의 표정만으로 현재진행중의 판세를 살펴내기 어렵다.

수도승 처럼 꼿꼿이 앉아 판을 넓게 보는 徐7단과 그보다 머리를 반쯤 앞으로 숙이고서 정신을 집중하는 姜4단. 두 기사의 모습을 보면 경건한 마음마저 우러난다.

초반은 이런식으로 약간 지지부진 이었는데 7분가량 판을 들인 黑47이 앞서둔 43·45처럼 때가 좀 일렀다. 徐『47은 黑「가」정도로 우변에 선착해야 했지않았을까. 귀삭임을 한것은 나로서 고마왔다』

黑이 소홀히한 우변을 白54로 전개했지만 그런기분으로 둔 점이다.

하지만 국후에는『54는 한줄 좁은「나」자리라야 옳았을것 같다』고 뉘우쳤다. 그랬어야 白56의 가일수가 필요치 않아 빨빠르게 판을 짤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黑55는 白56을 종용한 침착한 호착. 계속해서 黑57이 멋진 타이밍이었다. 黑57의 요소를 차지하고보니 실리면에서 앞지른 느낌이고 겸하여 43、45의 과오도 이로써 상쇄된 셈.

姜4단은 활기를 되찾고있다.

白58은 5분간 생각해서 찾아낸 유일한 큰곳. 그러나 黑이 잽싸게 59로 모해오자 白62가 불가피하다. 손을 뺐다가 黑「간」의 침입을 당하면 난처하다.

徐7단은 여기까지의 결과를 백중지세로 보고있었는데 다만 선수는 黑이 갖고있었다.【一凡】

땅끝에서 오다 <19>

金成一 作

뭔가 일어난다 ②

준호는 금방 비행기에서 내린 손님처럼 손수레를 밀며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누런 반코트의 사나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공연히 신경을 썼나…?)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갈색크라운 쪽으로 걸어갔다. 뭔가 좌이는게 있어서 힐끗 뒤를 돌아다본 그는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베이지색 체이서 안에 바로 그 반코트의 사나이가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후다닥 도어를 열어젖히고 코트와 가방을 옆자리에 던져넣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자마자 우악스럽게 악셀레터를 밟았다. 옆에 주차하고 있던 차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크라운은 기역자로 꺾어져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베이지 색 체이서도 엔진소리를 으르렁거리며 펄쩍 뛰듯이 스타트.하고 있었다.

크라운의 6기통 엔진은 여유있게 악셀레터의 가속을 받아내고 있었다. 본래 준호는 동경지사로 발령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면허를 받았으므로 아직도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도 80㎞이상은 밟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속도계는 130㎞를 가리키고 있다.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오싹한 노릇이었다. 베이지색 체이서는 조금도 거리를 늦추지않고 따라오고 있었다. 길가의 풍경들이 바람처럼 스쳐서 달아나고 있었다.

히가시 간또(東關東) 자동차 도로의 널따란 길이었지만 앞차를 추월할때 마다 준호의 이마에선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놈은 틀림없이 이 세원의 가방을 노리고 있었던것일까』

그는 이 세원의 가방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것일까. 「X·프로젝트」의 계약서인가. 그렇다면 놈은 경쟁업체의 하수인인가. 그렇다면, 그는 이 세원이 탑승수속만 하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것을어떻게 알았을까.

그 때였다. 체이서가 갑자기 덮쳐들듯 접근하더니 크라운의 헤드라이트를 박살내며 진로를 막았다.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을 끌며 두 대의 승용차는 한꺼번에 정지했다. 반코트의 사나이는 도어를 열고 뛰어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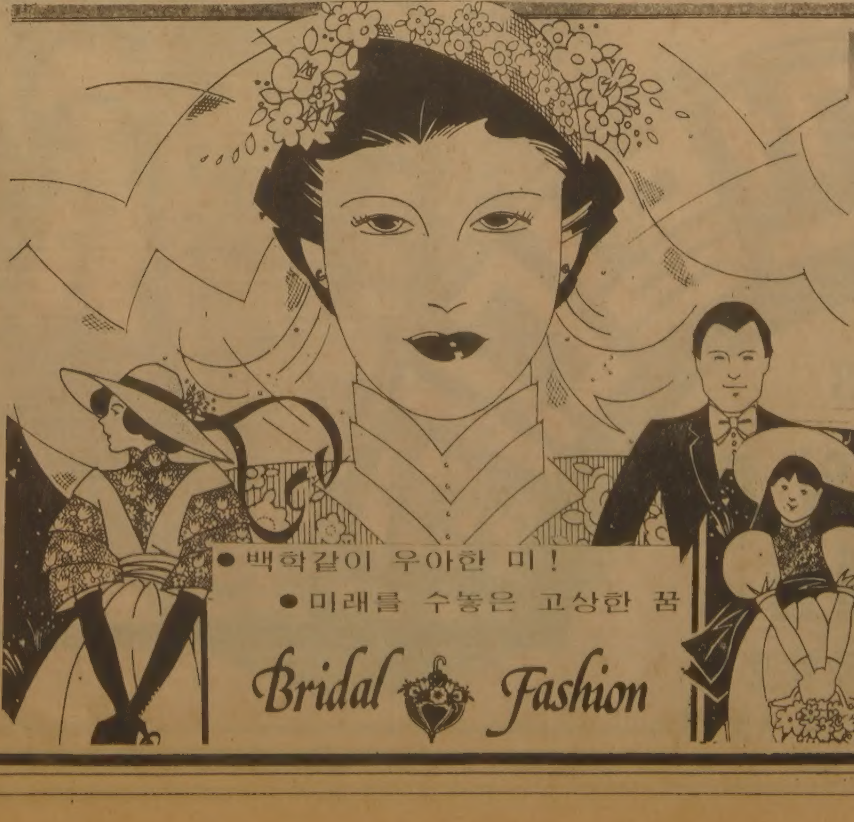
『올 것이 왔군』

준호는 상과대학의 특별반에서 수련했던 태권도의 몇 가지 품세를 재빨리 머리속에서 그려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섰다. 사내의 손에서 번쩍하고 빛나는 것이 있었다. 나이프였다. 준호는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뒷다리에 중심을 모았다.

사내는 휘하고 허공에 반원을 그리며 나이프를 휘둘렀다. 그 나이프를 뒤따라가며 준호의 뒷발이 번개같이 선회하였다. 태권도의 백미인 돌려차기 수법이었다. 오래간만에 발짓을 해보는 것이어서 겨냥이 빗나갔다. 준호는 놈의 머리를 노렸었는데, 그는 등판을 얻어맞고 비틀거리는 것이었다. 그만큼 발이 덜 올라갔다는 의미였다.

두 사람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나이프 끝이 준호의 얼굴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우에서 좌로 날아오고 있었다. 순간 준호의 몸이 공중에 뜨면서 3백60도를 선회하였다. 놈은 공중에 선회하며 날아오는 오른발 원발의 연타를 맞고 쓰러졌다. 중후를 하던 친구에게서 배워둔 따환체(大韓…)의 각법(脚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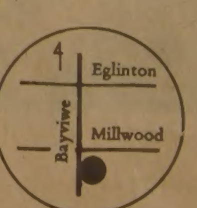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문의 533-2361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링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30대 애기없는 서양부부가 한국 애기를 입양하고 싶어함.
애기가 어릴수록 좋고 애기를 사랑함.
전화 : 533-0374 Jeri Vrieze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스타트는 보증금 원함. 주매상 : $6,000. 부부운영 원함.
전화 : 439-9531 (오전9시~12시에만 본인 있음)

유경험자 주말헬퍼(토·일요일) 구함.
Mac's Milk. 아침 10시~저녁 10시까지
전화 : 421-1089(Eglinton & Laird Dr.)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전화 : 861-1521(B). 222-3877(R)

살림과 가게일 거들어주실 중년 아주머니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입주시 독방드림) Steeles×Dufferin
전화: 669-5301 (저녁 6시 이후)

파트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전화 : 488-1634

풀타임 웨이트레스와 주방헬퍼 급구
전화 : 536-0290

일본요리사 및 남자주방헬퍼 구함
전화: (B)755-3010

애기 봐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전화 : 276-1212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쎄일즈하실 분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캐네디안 식당에 주방헬퍼 구함.
전화 : 621-3731 (Mr. 김) Etobicoke지역

스토아 여자 헬퍼구함
18세-24세 사이. 무경험자 무방.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63-1664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합니다
전화: 532-6143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447-6955 Mr. Le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월수입 : $6,900
전화 : 1-389-7755 (해밀톤) Mr. 차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 매매(Bar도 겸해있음)
2,000 Sq.ft. Church St.(King & Queen)
전화 : 368-1086 (월-금: 11:00am~10:00pm) Mr. Cameron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Chicken & Pizza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좋은조건에 양도함.
아스킹 $20,000+장비 몰게지. George Town.
전화 : 1-873-1603 Mr. 최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잘 손질된 야마하피아노 팝니다.
전화 : 652-0370 774 St.Clair Ave. W.

다운타운 Fast Food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아스킹 $39,000. 전화 : 593-8967, 826-3450
Steven Do. P. Ho Real Estate Ltd.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밀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Yonge & Steeles
전화 : 222-3299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 살림집 있음. 렌트: $625. 리스: 2년+2년
전화 : 465-4038 Mrs. Martin 아스킹 : $21,000+스탁

Thornhi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썸머린 가게로도 적합등등.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아케이드 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값어치 있는 캐비넷. 라이센스 Board. 아스킹: $2,500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위치좋은 장소 세놓습니다.
구두방이나 피자 가게하기에 적합.
1370 Queen St. E.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3 Bed Room 렌트
456 Gerrard St. E. TOR.
전화: 921-4283 Mr. or Mrs. 윤

미시사가 3 Bed Rm. 디타치드 집.
Oak 나무로 충계 전부 되어 있고. 중앙식 에어 컨디션.
3 Baths. Family Rm. Laundry Rm.
Double Garage. 꼭 팔아야 함.
전화 : 279-5113 (영어로 문의 바람)

광고문의 533-2361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6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밀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